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旻挺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의
기법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the technique of Non-set braided
Up-style

2006年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學科

헤어디자인專攻

宋 周 妍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旻挺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의
기법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the technique of Non-set braided
Up-style

위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6 年 12 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學科

헤어디자인專攻

宋 周 妍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이 형성되는 데 있어 시대적 발생 배경 및 디자인적 미학과 관련하여 고찰하고,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에 영향으로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의 외적, 내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여 브레이딩의 특징과 미적 특성에서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 디자인에 어떠한 역할을 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수용, 표출되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현대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을 미용 디자인에 응용하고자 한다.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본능적 사고와 자신의 얼굴과 머리를 가꾸려는 본능적 욕구가 공존한다. 인간이 아름다워지려는 욕구인 미적본능은 고대부터 있어왔는데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에서 동물의 가죽 등으로 신체를 장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미적 본능은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욕구로 창의적 사고에서 표현되고 있다. 창의적 사고는 자연으로부터 지혜를 얻거나 과학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자연적 행위해법들을 탐구·연구하여 보다 편리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용 디자인은 동·서양의 문화적 현상에서 볼 때 헤어스타일은 모든 시대에 사회변화요소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와 같은 사회적 조건 흐름에 따라 고유성이 나타난다. 머리 양식에서의 고유성은 육체와 정신, 종교의식에서 나타나는 욕구충족에 의해 두발을 소재로 내·외적인 면을 인간 활동의 미용양식으로 표현되었다. 미용양식은 인간 성장 과정과 삶의 방식에서부터 시작됨은 고대국가성립이후부터 사회적 지위에 따른 두발양식의 가치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두발은 첫째,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두뇌를 보호하는 기능적 측면과 둘째, 인간의 삶에 대한 지위나 부를 나타내는 시각적 상징적 구실 셋째,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표현 수단이 되며 넷째, 시대를 대신하는 인체조형예술로서의 문화적 가치를 형성하여 표현되었다.

헤어스타일은 신분, 사상, 가치관, 사회적 지위에 따라 변화와 발전을 해왔다. 현대사회에서도 헤어스타일은 자신의 개성과 이미지로 표현하여 자신만의 멋을 발휘하는 표현 양식으로 새로운 자식발견의 외적인 수단이 된다. 또한 인간과의 상호 유기적 작용으로 중요한 시각적 매체로서,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타인에게 이미지 형성을 하며 어엿하게 사회 활동을 영위하며 장소, 시간, 직업, 신분에 따라 적합한 헤어스타일을 연출을 행하여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시 되는 미용디자인은 기능적, 심미적, 상징적으로 적용되어 사회·문화에 적용되는 중요한 표현 양식임을 알 수 있다.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기에는 다양한 아이디어, 소재 등을 잘 조합하여 하나의 완벽한 형태로 형상화시키기 위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디자인의 연출은 생활수단의 일부분으로서 예술적 분야와 직업적인 면에서 기술적 분야로 구분되는데, 어느 분야에서도 헤어스타일의 연출은 지구에서 인류가 존재하는 문화 속에서는 공존한다는 것이다.

목 차

국문초록

I. 서 론	1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4
 II. 논셋트 업스타일에 관한 고찰	 5
1. 논셋트 업스타일의 발생배경	5
1) 논셋트 업스타일의 특성	5
2) 논셋트 업스타일의 동양과 서양의 스타일 경향	8
2. 논셋트 업스타일의 디자인 분석(특성)	24
1) 디자인과 형태의 분석	24
2) 형태미에 의한 분석	29
3) 논셋트 업스타일기법의 의한 분류	35
 III.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기법의 기술적인 방법	 41
1.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의 실질적 기법	43
2. 촉각에 의한 브레이딩 기법	45
1) 안닿기(Invisible braiding)	46
2) 겹닿기(Visible braiding)	48
3) 2가닥 (Fish bone, Twist)	50
4) 바구니 (Basket)	52
3. 시각에 의한 브레이딩 기법	54
1) 헤어 컬러링을 통한 브레이딩	55
2) 리본을 이용한 브레이딩	55
3) 헤어피스를 이용한 브레이딩	56

4. 기기에 의한 브레이딩 기법	57
1) 트위스트 기기	58
2) 세 가닥 기기	59

IV. 논세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을 이용한

텍스처의 실제적 응용	61
1. 전통복식 논세트 브레이딩 업스타일	62
1) 작품1 - 조선시대 어여머리	62
2) 작품2 -로마시대 여성머리	64
2. 파티& 드레스 논세트 브레이딩 업스타일	66
1) 작품3 -A belle	66
2) 작품4 -Charm	68
3. 오피스룩 논세트 브레이딩 업스타일	70
1) 작품5 -Finish	70
2) 작품6 -Provocation	72

V. 결 론

1. 결론 및 제언	74
------------------	----

참고문헌

ABSTRACT	80
----------------	----

표 목 차

[표 1] - 대칭과 비대칭의 미적효과	26
[표 2] - 형태의 특징	30

사 진 목 차

[사진 1] - 땃기(Braid)	35
[사진 2] - 땃기(Braid)	35
[사진 3] - 땃기(Braid)	35
[사진 4] - 매듭(Knot)	36
[사진 5] - 매듭(Knot)	36
[사진 6] - 매듭(Knot)	36
[사진 7] - 겹치기(Over Lap)	37
[사진 8] - 겹치기(Over Lap)	37
[사진 9] - 겹치기(Over Lap)	37
[사진 10] - 꼬기(Twist)	38
[사진 11] - 꼬기(Twist)	38
[사진 12] - 꼬기(Twist)	38
[사진 13] - 말기(Roll)	39
[사진 14] - 말기(Roll)	39
[사진 15] - 말기(Roll)	39
[사진 16] - 고리(Loop)	40
[사진 17] - 고리(Loop)	40
[사진 18] - 고리(Loop)	40

[사진 19] - 안뜯기 시술과정	46
[사진 20] - 겹뜯기 시술과정	48
[사진 21] - 피쉬본(Fish bone) 뜯기 시술과정	50
[사진 22] - 트위스트(Twist) 뜯기 시술과정	50
[사진 23] - 바구니 뜯기 시술과정	51
[사진 24] - 바구니 뜯기	51
[사진 25] - 바구니 뜯기	51
[사진 26] - 바구니 뜯기	51
[사진 27] - 헤어 컬러링을 통한 브레이딩	53
[사진 28] - 헤어 컬러링을 통한 브레이딩	53
[사진 29] - 헤어 컬러링을 통한 브레이딩	53
[사진 30] - 리본을 이용한 브레이딩	55
[사진 31] - 리본을 이용한 브레이딩	55
[사진 32] - 리본을 이용한 브레이딩	55
[사진 33] - 헤어피스를 이용한 브레이딩	55
[사진 34] - 헤어피스를 이용한 브레이딩	55
[사진 35] - 헤어피스를 이용한 브레이딩	55
[사진 36] - 트위스트 기기	56
[사진 37] - 세 가닥 기기	75
[사진 38] - 전통두식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 조선시대의 어여머리시 술과정 및 재현	16
[사진 39] - 전통두식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 로마시대의 여성머리 시 술과정 및 재현	36
[사진 40] - 파티&드레스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 A belle 시술과정 및 재현	65

[사진 41] - 파티&드레스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 Charm 시술과정 및 재현	67
[사진 42] - 오피스 룩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 Finish 시술과정 및 재 현	69
[사진 43] - 오피스 룩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 Provocation 시술과정 및 재현	71

I. 서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한 시대의 예술 사조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의 사회적·문화적·미적 특성과 가치관 그리고 욕구가 반영되어 표현되어진다. 또한 예술은 역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감성으로 작용하여 사회·문화적 변화를 유도한다. 따라서 미용 역시 당 시대의 예술사조와 상호영향을 주고받게 되며 그 미적 형태를 공유한다.

예술이란 인간의 창조 행동에 의해서 자기의 미적인 세계관을 의식적으로 표현하고자 기술이나 방법으로¹⁾ 예술품은 예술의 각 양식마다의 표현 기술의 특수성에 따라 만들어진다.²⁾ 시대와 문화의 산물인 미용 디자인은 더 이상 그 개체가 따로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하여 통합적 조형 양식으로 존재하면서 동시대적 사조나 이슈를 반영할 뿐 아니라 타 문화 예술 현상들과 상호 의존적 또는 상호 수정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미용과 디자인은 더욱 긴밀한 상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디자인이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요소는 10인 10색으로 점차 개성화 경향이 높아졌으며, 장래에는 10인 1000색 혹은 그 이상으로 극도로 다양화해질 것이다.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19세기에는 지금까지의 기술이 주도하였으며, 기능, 현실성, 가격 등이 중요시되었다. 20세기에는 첨단기술이 주도한 반면에, 21세기에는 인간중심의 기술이 주도하게 되어 보다 안락감, 즐거움, 용도가 중요시된다.

현대에 미용은 단순한 기능의 머무르지 않고 조형예술의 한분야로 인식되었다.

이에 미용디자인의 최종 목표는 인간의 감성을 기술과 미용 디자인에 적용함으로써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에 부응하여 미용디자인을 행함으로써 경쟁력도 높게 하는 것이다.

미용예술분야는 고유한 미용문화의 주체성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새로운

1) 성기역 編著(1979), 『造景美學』 서울 : 학문사, p.25.

2) 성기역 編著(1979), 상계서, p.27.

디자인양식을 적절히 수용하여 이에 따른 갈등과 상반됨을 조절해서 미래 사회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양식을 창조, 정시하고, 국내외의 각종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고, 연구한 지식과 새롭게 개발한 디자인이나 아이디어에 관한 정보를 발신함으로서 공유해야 한다.

이전에는 미용 디자인을 디자인의 개척창과 감각 및 섹시 시
호에 의해 주로 발의해 왔다. 21세기에서는 이러한 틀을 깨고, 미용 디자
인에 우리의 정체성을 호응하고 소비자의 감성을 담아, 국내외 전 세계의
소비자에게 구성이 있게 제안해야 한다.

두발이 그 본래의 존재의 의의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인 뇌를 보호하는데 있지만 여성일 경우 예나 지금까지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하나의 머리양식의 장식으로 삼아왔다. 머리양식을 통해 미를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미용 기술이 행해지고 있다. 이 중 업스타일에서 더욱 전통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셋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여지는 브레이딩(Braiding, 땃기)기법을 수식(修飾)문화의 일부분으로 장식성과 실용성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예술 등 사회·문화적인 일면을 상징(象徵)한다.

3) 문영숙(2001), 『20C 헤어스타일변천사고찰』, 한국인체예술학회지제2권제2호, p.106.

정의 할 수 있다. 논셋트 업스타일은 두발은 묶는 포인트가 두개골에서 결정되며 머리다발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용 디자인 분야는 그 시대의 미의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고, 민족, 성별, 직업, 종교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사람의 지위, 계급, 신분, 혼인의 유무 등을 판단 할 수 있으므로 미용 디자인은 사회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미용 디자인은 궁극적으로는 안락하고, 쾌적하며, 안전하고, 윤택한 인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용양식에 대한 생활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데 있어서 무형의 예술인 머리 양식은 그 자료의 부족함이 있으나 고대 서적이나 벽화, 초상화 사진 등에 따른 역사 속 인물을 통해 선조의 머리 양식을 추측(推測)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문화의 한 부분인 미용(美容)양식인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전통미용양식을 수용하고자 하여 재조명하고자 한다. 전통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의 모티브(motive)한 전통미용양식을 현대적으로 디자인 요소를 통한 컨셉의 특징을 연구하여 구현코자 함에 있다. 역사를 주의 깊게 보면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이 “인류가 수발 양식에서 가장 처음 시도한 머리양식은 브레이드 스타일”⁵⁾이라는 문헌을 전제로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을 미용 예술로 승화시켜 현대의 실용적인 미용 디자인에 응용하여 고감도의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을 디자인함에 있다.

연구의 목적은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이 형성되는 데 있어 시대적 발생 배경 및 디자인적 미학과 관련하여 고찰하고,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에 영향으로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의 외적, 내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대적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의 중요한 기조가 되는 브레이딩의 특징과 미적 특성에서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 디자인에 어떠한 역할을 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수용, 표출되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현대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을 미용 디자인에 응용하고자 한다.

4) 이노우에 요헤이(박경숙 역, 1985), 『Hair Design』, 서울 : 한서, p.134.

5) 송희라 외(2000), 『헤어 패션에 나타난 브레이딩 헤어스타일』, 한국인체예술학회지 제 1권, p.137.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연구 방법으로는 이론적 연구에 있어 문헌자료들을 중심으로 논셋트 업스타일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우리나라와 서양 논셋트 업스타일 스타일 경향 고찰하여 디자인적 미학과 관련하여 고찰하여본다.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에 관한 고찰은 논셋트 브레이딩 기법의 객관주의 의미를 탐구하여 특성분석을 한다. 조형예술인 미용양식을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을 형태 지각적 측면에서 특성을 분석해 보면서 촉각, 시각, 기기로 나누어 형태적인 면, 심미적인 면, 기능적인 면, 디테일로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을 3가지 스타일로 구분하고 각 스타일별 세분화 하여 6가지의 작품을 실제 제작하여 각 특징을 작품 해설하여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에 대한 조형적인 측면과 기법을 설명하여 재현해 보려고 한다.

II장에서는 논셋트 업스타일에 고찰로 발생배경과 특성을 알아보고 논셋트 업스타일의 우리나라와 서양의 스타일 경향에 대하여 알아본다.

논셋트 업스타일의 디자인 분석을 통해 디자인과 형태, 형태미의 분석과 논셋트 업스타일 기법에 의한 분류에 대하여 알아본다.

III장에서는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 기법의 기술적인 방법에 대하여 감각적으로 분류하여 촉각, 시각에 의한 브레이딩 기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이에 현대 기술적 진보의 방법인 기기에 의한 브레이딩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IV장에서는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을 우리나라와 로마시대 전통두식스타일, 파티& 드레스 스타일, 오피스룩 스타일로 구분해보고, 각 스타일별로 세분화하여 현대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을 미용 응용 스타일로 재현하려 한다.

V장에서는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이 갖는 제한점과 발전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 논문의 제한점과 연구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러한 특징으로 정리해줄 수 있는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은 현대 미용 디자인에서도 계속 새로운 스타일로 재현, 활용되고 있어 이를 응용한 현대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적이며 실용적인 디자인하고 개발하고자 한다.

II. 논셋트 업스타일에 관한 고찰

1. 논셋트 업스타일의 발생배경

1) 논셋트 업스타일 특성

업스타일이란 목덜미 윗부분에서 묶음 다음 웨이브를 주거나 형태를 만들어 스타일을 이룬 스타일 모두를 말할 수 있다.⁶⁾ 또한, 머리를 높게 빗어 올려 위에서 그쳐 목덜미를 드러내는 여자머리모양이거나 여자머리꾸밈새의 하나이다. 포괄적인 의미로 본다면 머리를 묶거나 핀으로 고정시켜 목덜미 부분위에서 연출되어지는 모든 머리형태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업스타일에는 형태적면에서 셋트 업스타일과 논셋트 업스타일로 구분된다. 본 논문에서는 논셋트 업스타일을 브레이딩(Braiding, 땅기)기법을 사용하여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의 기법을 활용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업스타일(up style)은 올림머리, 엷은머리, 머리모양의 기본 중의 하나로 끝부분이나 양측두부의 머리를 두정부, 후두부 쪽으로 끌어 모으는 형태의 미용양식을 뜻한다. 업스타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웨이브를 만드는 셋팅을 하거나 자연머리로 하는 경우가 있다.

셋트(set)는 ‘특수한 상태로 되게 하다’, ‘정리하다, 바로 잡다’는 의미이다. 셋팅(setting)은 두발의 형태를 만들고 빗이나 브러쉬(brush)를 사용하여 두발의 완전한 스타일을 만든다.⁷⁾ ‘셋트’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한 위치나 상태로 두다, 고정시키다’ 이지만 미용용어로는 ‘두발 형을 만들어 마무리한다’로 해석한다.⁸⁾ 또는 파마할 때 머리카락을 마는 일 또는 그런 기구를 뜻한다. 이에 논셋트(non-set)를 정의하여 보면 ‘고정되거나 정돈되지 않은 상태’, ‘엷겨 뭉치지 않은 상태로 되다’, ‘정리가 안 된다’이거나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미용용어의 논셋트(non-set)는 셋팅이나 드라이, 아이롱을 사용하거나 파마를 하지 않은 것으로 웨이브가 표현되지 않는 두발 형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6) 백정희(2006), 『업스타일 기법의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p.4.

7) 신지현(1999), 『신미용학개론』, 서울: 수문사, p.224.

8) 김민정 외(2005), 『미용학개론』, 서울: 백산출판사, p.83.

셋팅이나 드라이, 아이론 등을 이용하여 굽은 웨이브를 만들어 준 다음에 올림머리를 하는 것을 셋트 업스타일(set up style)이라 하며, 두발에 웨이브가 전혀 없어 엉겨 뭉쳐있지 않은 생머리로 올림머리를 하는 것을 논셋트 업스타일(non-set up style)이라 한다.

논셋트 업스타일이란 일반 업스타일과는 달리 셋팅을 하지 않는 형태로서 디자인 구성에서 일반 셋팅 업스타일과의 차이점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논셋트 업스타일에는 시뇽(Chignon)⁹⁾ 스타일이 있는데 “시뇽은 프랑스어로 상투 또는 상투처럼 묶은 머리로 대체로 한곳에 묶어 올린 머리형태의 종류”¹⁰⁾로 정의 할 수 있다. 논셋트 업스타일은 두발은 묶는 포인트가 두개골에서 결정되며 머리다발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묶음머리(업스타일)이라 하면 묶어 올리는 기술은 파란곡절(波瀾 曲折)이 많은 생활양식의 흐름에 따라 그 형태(形態)나 질(質)이 달라졌다. 이는 아름답고자 하는 욕망과 함께 가장 근본적인 시발점은 생활의 필요에 따라 활동적인 것을 원함에 따라 나타났다.

생활의 필요성의 의해 발생되었다는 것은 “수렵생활의 활동에 불편을 느낀 헤어를 유연한 나무껍질이나 질긴 풀잎 등으로 묶어서 엮어매었을 것”¹¹⁾으로 추정했었다.

먼저 스타일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모양, 유형, 유행의 명사와 일정한 양식이나 유행에 따라 디자인하다 또는 장식품을 만들다’로 정의 된다. 이에 업스타일이란 ‘머리의 모양’ 또는 ‘머리의 형’이라는 의미와 ‘머리를 일정한 양식과 그 시대의 유행에 따라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스타일의 개념은 긴 모발을 활동목적에 따라 편리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한 스타일의 한 분야이며 긴 모발을 편이나 끈을 이용하여 묶거나, 매거나, 땃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미성 감각과 기능성과 합목적성의 조화를 통한 다양한 방법의 미용 디자인을 연출하는 것이다.

업스타일은 민족과 종교, 그 시대의 미의식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민족, 직업, 성별, 종교 등을 유추할 수 있으며 계층 간의 차이를 머리형태에서 보여 진다. 귀족계급에서는 화려하고 다양한 형태의 머리장식과

9) 시뇽(Chignon)이란, 틀어 올린 머리, 머리를 틀어 올리거나 업스타일에서 마지막 연출 또는 머리끝의 모양, 상투, 번발 고아서 땃아 둥글게 꾸미는 것.

10) 이노우에 요헤이(박경숙 역, 1985), 『Hair Design』, 서울 : 한서, p.134.

11) 전옥주(2003), 『Hair 로 인한 image 창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p.1.

가발, 가체들을 사용하였고 하층계급이나 노예들은 활동하기 편리한 스타일을 하였다.¹²⁾ 문명생활을 하면서 미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며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시대나¹³⁾ 가치관에 따라 변천해 오고 있다.

논셋트 업스타일 행위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문헌적 근원은 미흡하지만 우리나라 선사시대(先史時代) 씨족사회에서 서로의 씨족원들 끼리 전투를 벌일 때, 적대(敵對)하는 두 집단의 전사들은 토템(Totem)이 표시된 관모를 머리에 썼으며, 미개인들은 머리털로 요대(腰帶)를 둘렀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해(災害)를 입는다고 믿었다.¹⁴⁾

이는 관모와 요대를 착용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논셋트로 묶음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단군원년부터 땅아서 늘어뜨린 머리모양으로서 편발을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설화적인 기록에 불과하지만, 이를 미루어볼 때 고대사회에서부터 머리카락을 간수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분명하였다. 또한 “B.C. 2238년에 머리를 땅게 하였다.”¹⁵⁾에서도 문헌이 있다. 편발풍속은 중국의 사마천(司馬遷)이 지은 <사기열전(事記列傳)> 조선전조(朝鮮傳條)에 위만 조선시대 이전부터 땅아 늘였던 두발을 한데 묶쳐 머리 꼭대기인 정수리부분에 둥글게 상투 형태로 변해갔다.

반면 고대문명지인 이집트를 살펴보면 이집트인들의 강한 미적 욕구를 일상생활을 통해 특히 지배계층들에게는 생활의 일부분에서 엿볼 수 있다.

이처럼 필요에 의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사회 현상 속에서 문화의 양상과 더불어 미적욕구가 생겨났고 자연적으로 다양한 디자인이 발생되어 역사를 이루어왔다고 볼 수 있다. 업스타일은 고대에는 장식목적과 개인의 신분이나 계급을 나타내는 표시수단의 역할을 했다. 현대에는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생활의 일부분으로 긴 머리를 묶거나 땅아 장식품과 함께 구성하며 짧은 머리자체에 켄이나 피스형태를 활용하여 매우 다양하고 응용된다. 또한, 사회 진출이 활동이 활발한 현대여성은 모던한 자기 개성 이미지 연출과 단정하면서도 심플한 내면적 강건함이 요구된 헤어스타일로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고 있다.

2) 논셋트 업스타일의 우리나라와 서양의 스타일 경향

12) 백정희(2006), 전계논문, p.6.

13) 柳景子(2004), 『풍속화에 나타난 조선후기 여성의 두식』,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p.14.

14) 홍서연(1989), 『纖維를 응용한 머리 裝身具에 관한 研究』, 숙명여자대학교산업대학원, p.4.

15) 이상근 외(2003), 『업스타일 디자인 방법론』, 서울 : 형설출판사, p.22

(1) 우리나라의 논셋트 업스타일의 스타일 경향

① 선사시대

신석기는 前期(설즐문토기기 B.C. 5.000~B.C. 3.000), 中後期 의 즐문기토기(B.C.3.000~B.C.1.000)로 구분된다. 이 시대 환웅(桓雄)천왕 거발환(居發桓)은 신분과 계급의 구분도 명확히 하였으며 의, 식, 주의 편의와 제도를 만들고 머리를 땅게 하였다.¹⁶⁾ 원시시대를 대개 선사시대라 하며 이 시대에는 전시(戰時)때 관모나 요대를 들렀다는 문헌기록이 있다. 그들 씨족원들은 태양, 바람, 비 등의 위대한 우주의 신비력을 숭배하고, 식물, 동물 등도 숭배의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상징하는 기물을 머리나 몸에 장신구로서 장식(裝飾)하였다.¹⁷⁾

또한 청동기시대의 뼈 비너가 출토되었으며 이미 B. C. 3000년경에 농경사회가 발달하면서 남자들은 상투를 틀어 올렸음을 알 수 있다. 마한에서는 모발을 아름답게 길렀으며 변한, 진한의 남자들도 상투를 틀어 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한의 여자들은 머리를 엇거나 묶어서 뒤로 늘어뜨리기도 하였다.¹⁸⁾

선사 때부터 쌍게 머리 형태를 하였다고 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이 머리의 묶음 방식은 원시·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역사로 오래되었다고 본다. 이 쌍게 머리형은 부락공동체를 이루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여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에서 머리 형태를 표출해 냈을 것이다. 이에 모발 정리의 관습은 설화에 불과하지만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원시시대부터 것으로 고대 사회에서부터 모발을 정리하여 신분의 표시까지 했는데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단군왕검 환웅이 백성들로 하여금 두발을 땅아서 편발(編髮)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는데 이 풍속은 사기열전 위만 조선 이전부터 땅아 늘렸던 머리가닥을 한데 뭉치거나 정수리 부분에 둥글게 묶어 말아 올린 뭉치상투형

16) 金容文(1993) 『아시아의 수발양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 대학원, p.23.

17) 黃五棍(1979), 『韓國 裝身具史』, 서울: 서문당, p.24-25.

18) 강영숙 외(2004), 『웨딩헤어 디자인』, 서울: 훈민사, p.24-25.

태로 변해갔다. 상상으로 미루어 보아 그 형태는 알 수 없어도 그 존재를 추정하여 짐작하며 생활의 편의와 숨씨가 발전 되면서 모방 심리의 의해 자꾸만 변화를 거듭 했을거라 여겨지며 오늘날의 상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선사 시대 때부터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②삼국시대

삼국시대는 국가의 체계가 갖추어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머리형태가 다양해되었다. 삼국시대의 각 나라의 수식(首飾)은 각자의 특색이 있었을 것이나 고기(古記)이나 고대 출토품(古代 出土品) 등을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삼국이 대부분 공통된 양식을 하고 있다.

수식(首飾)의 풍속은 국가의 체계가 갖추어지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삼국시대에 이르러 다양화(多樣化)되었다. 이 시대에는 머리형으로 신분(身分)과 지위(地位)를 나타냈다는 점이 주목된다.

고구려에는 머리를 매는 양식인 논셋트 업스타일로 자연발의 상태에서 발달되었으며 벽화(壁畵)에 나타난 여인들의 두발 형은 다양(多樣)하였다.

백제는 옛 중국 <북사열전(北史列傳)>에서 여자는 “머리를 뒤로 늘이고 혼례를 하면 두 가닥으로 나눠 머리 뒤에 길게 잘 휘는 물건을 형클어지지 않도록 빙빙 돌려 포개어 감아뒀다.”에서 보면 논셋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서(周書)에 “미혼녀들은 땡아서 머리 위에 둥글게 얹고 다닌다.”는 기록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혼인(婚姻)을 전후로 머리형태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신라에 여인들은 가발을 사용하여 장발(長髮)의 처리기술이 뛰어났다.

삼국시대는 고유한 한국 관모의 시원(始原)양식이 성립되어 두상(頭上)에 착용하는 관모 이외의 남·녀의 두발을 정돈하는 다양한 머리모양이 있었다.¹⁹⁾ 이는 머리를 가지런히 정돈하여 묶어 관모를 착용을 하였다.

남자는 주로 관모를 착용하였고, 여자는 두발모를 두후(頭後)로부터 감아 올려, 머리 위에 얹는 형태인 얹은머리와 머리 뒤에서 발모를 모아 쪽을 지는 형태인 쪽진 머리²⁰⁾발모를 뒤로 수하(垂

19) 홍서연(1989), 전개논문, p.4

20) 이은창(1978), 『韓國服飾의 歷史교양국사총서29』,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290-291

下)시키는 형태인 채머리, 짧은 두발을 자연 그대로 수하(垂下)시키고, 두후부에서 낮게 묶어서 그 발모 끝을 위로 반전(反轉)시키는 형태인 묶은 머리 등이 있었는데, 이는 우리나라머리모양의 시원(始原)양식이 되었다.²¹⁾ 미혼녀들의 머리형은 대부분 묶어 늘어뜨린 형이 많았다.

풀어 늘어진 머리에서 발달된 계(髻)는 머리가닥을 합쳐 묶는 결발(結髮)의 양식으로 남자는 모두 상투머리를 틀고 여자는 북계(北髻)(쪽진머리, 민머리), 엷은머리 기타 여러 머리형태로 남자의 머리모양보다 훨씬 복잡하였다.

이로 고려시대에는 결발(結髮)형태에서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의 발전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③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송과 원 그리고 명나라의 영향을 받아 강대국의 모방적인 면도 나타내지만 고유성을 지키려고 애쓴 흔적이 많다.²²⁾

여인들의 수식(首飾)도 신라시대의 것과 대체로 유사하여, 머리모양은 쪽진 머리와 비슷하나 쪽을 머리 위에 붙인 것이 아니라 머리다발 중간에 틀어 삼홍색의 갑사로 만든 댕기로 묶은 것이 달랐다. 또한 고려불화에서 부녀의 수식은 드물게 발견되지만 귀천 없이 동일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머리모양을 살펴보면, 출가 한 여자는 홍나(紅羅)로 묶고, 그 여발(餘髮

)은 뒤에 내린다 하였으며, 부녀(婦女)의 머리모양으로는 귀천 없이 동일하게 머리를 틀어서 강나(絳羅)로 묶고, 여기에 작은 비녀를 꽂았으며, 여발은 뒤에 내려뜨린다 하였으니, 이는 쪽진 머리와 비슷하나 쪽을 머리 뒤에 붙인 것이 아니라, 느리게 해서 어깨까지 처지게 한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시대 기혼여성들의 수발모습은 상대의 엷은머리와 비슷한 형태나 귀밑머리를 실타래처럼 틀어 오른쪽 어깨에 드리움으로써 새로운 스타일을 시작했던 것 같

21) 이은창(1978), 상계서, p.5.

22) 黃沅根(1979), 전계서, p.32.

다.²³⁾

부녀의 머리모양은 “고려도경”에 인용된 것으로, 중국의 추마계(墜馬髻)와 비슷한 것으로, 이 명칭은 말에서 떨어졌을 때, 여자들의 머리모양과 같다고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²⁴⁾ 또한 고려인들은 신분에 따라 치장하는 정도가 달랐으며, 특수한 신분과 기생들의 화장은 짙게 하였고 교방에서 화장술을 가르쳤으며, 머리를 틀어 올려 동백기름과 아주까리기름 등으로 정돈하였다. 고전 기록에 보면 고려의 수식 연구(首飾研究)는 중국 송나라 사신이었던 서공(徐兢)이 쓴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 일부를 찾아 볼 수 있었으며, 고려 후기에는 중국 원(元)과의 국혼관계로 말미암아 몽골풍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 특히 족두리, 도투락댕기는 몽골여인들의 풍습이었으며 이후 명(明)의 습용으로 사라졌다. 절세주인(絶世佳人)을 노래한 고려시대의 시(詩)를 살펴보면 “구름 같은 머리털에 옥잠(玉簪)을 꽂았구나”하는 구절을 보면 가체를 사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비녀 역시 사용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④조선시대

조선시대 머리양식은 고려의 풍속을 이어 받았으며 대표적인 머리양식은 엷은머리 즉 “트레머리”라고 하고 쪽머리를 우리나라 상고시대부터 이어온 전통적인 머리양식이었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 말기에 정리 한 그대로 습용하다가 유교의 숭상으로 고려시대보다 검소하고 간략해졌으며 제4대 세종8년에 조궁제복(朝宮祭服)을 제정 한 후 점차 정리되었다.

조선 중기에 오면서 몽고(蒙古)의 수식(修飾)을 본받아 반가부녀자의 머리에 체(일종의 가발로 다리, 다래, 달비, 월자, 차라고 불림)를 사용²⁵⁾하여 풍성하게 치장하여 꾸민 엷은머리가 크게 유행되었고, 이는 일반 서민여성들에게도 퍼져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23) 홍서연(1989), 전계논문, p.53.

24) 柳喜卿(1975), 『韓國 服飾史 研究』, 서울: 梨大출판사, p.209.

25) 이영주(2000), 『조선시대 가체 변화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석사논문, p.17.

일반 서민들의 머리형태는 반가 부녀자와 같이 틀어 올린 머리 있긴 하나 본발(本髮)로만, 또는 작은 다리를 드려 빗은 것으로 반가 부녀자 것 보다 크기가 작았다.²⁶⁾ 두식으로는 출가녀(出嫁女)에 있어서 엷은머리, 쪽진 머리 등이 있고, 미가녀(未嫁女)에 있어서 땡은 머리, 묶은 중발 머리 등이 있었다.²⁷⁾

조선 후기는 왕녀의 복식에 따라서도 머리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는데, 예장용인 대수, 큰머리, 어여머리가 있고, 평상시에 첩지머리 등이 있었으며 공주와 옹주인 경우에는 새앙머리가 있었다.

부녀자의 수식(首飾)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髻), 다래, 낭자(娘子) 등으로 불리었던 가발 풍속이 있었다.²⁸⁾ 고대(高大)하게 엷은머리가 지신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였기 때문에 머리치장에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²⁹⁾가 발생하는 등의 여러 폐단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가체 수발 양식은 사치와 퇴폐가 극에 달하자 영·정조 시대에는 금령을 실시하였다.

일반 서민 부녀자 들은 혼례와 동시에 출산, 육아, 농사와 가사 노동, 직조 노동 등 여러 고된 노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본체나 적은 양의 가체를 시용하여 엷은머리와 쪽진머리를 하였다.

⑤개화기 및 현대

우리나라 헤어스타일과 복식에 있어서 사회적인 격변에 따라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조선왕조 말에 양장의 도입으로 한복, 양복의 이중구조 양상을 보이게 되는 개화기이다.³⁰⁾

개화기 때에는 궁중(宮中)의 머리 형태는 없어지고, 다만 쪽진 머리만 일부 남게 되었다.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1920~1920년대에

26) 조미영(2004), 『조선후기 여성의 머리형태 재현에 의한 현대 업스타일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p.6.

27) 柳喜卿(1975), 전계서, p.397.

28) 趙孝順(1988), 『韓國 服飾 風俗史 研究』, 서울 : 일지사, p.427.

29) 조미영(2004), 전계논문, p.6.

30) 이경자(1995), 『한국복식사론』, 서울 : 일지사, p.15.

는 긴 머리가 유행하였으나, 1930년대에 들어와서 파마가 등장하면서 긴 머리는 자르고 곱슬머리로 만들어졌으며 1930년대까지도 조선왕조 후기 여성들의 머리모양이었던 결발 즉, 처녀들은 여전히 앞가르마를 타서 붉은 땃기로 땃은 머리를 하고 뒤로 늘어뜨렸으며, 부녀자들은 쪽을 지거나 얹은머리를 고수했다.³¹⁾ 하여 논셋트 업스타일을 행하여졌다. 반면,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경우도 결혼 전에는 머리를 자르거나 웨이브 긴 머리를 하다가도 결혼을 하고 나면 다시 머리를 길러 쪽을 지는 것이 대부분 이었다³²⁾하여 셋팅의 헤어스타일 도입을 알 수 있다. 1950년대에는 헤어스타일은 짧은 단발머리에 옆 가르마로 퍼머넌트 웨이브가 유행하였다. 1960년대에는 한복과 양장에 어울리는 우아한 올림머리가 이 시기에 유행하면서 서서히 논셋트 업스타일이 간소화되었다.

1960년대를 기준으로 업스타일이 점차 유행했으며 1970년 이후 점차 퇴조하는 현상은 보이다가 최근 다시 여성의 아름다움을 부드럽고 우아하고 클래식하게 표현하는 기법으로 복고적인 경향과 더불어 다시 유행하고 있다. 1970~80년대에는 고도의 경제 성장과 각종 미용기구도입으로 퍼머넌트 웨이브와 커트 기술이 향상되었으며 칼라TV의 등장함으로 색상의 혁명이 되었다. 1990년대는 토털 패션이 강조 되면서 개성을 추구하고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였다. 보다 자연스럽고 손질하기 편한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조금씩 논셋트 업스타일이 미용 소비자의 욕구저하와 시대상의 의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현대에서는 논셋트 업스타일이 다양한 기법과 브레이드(Braid)의 기본 형태로 자리 잡아 인식되어지고 있다.

31) 鄭淑香(2002), 『업헤어스타일의 디자인 開發에 關한 研究』, 대구카톨릭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p.34.

32) 전완길 외 (1995), 『한국생활문화100년』, 서울 : 장원.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논셋트 업스타일 스타일 경향에서 선사시대에는 모발 정리의 관습은 설화에 불과하지만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원시시대부터 것으로 고대 사회에서부터 모발을 정리하여 신분의 표시까지 했는데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삼국시대의 풀어 늘어진 머리에서 발달된 계(髻)는 머리가닥을 합쳐 묶는 결발(結髮)의 양식으로 남자는 모두 상투머리를 틀고 여자는 북계(北髻) (쪽진머리, 민머리), 엷은머리 기타 여러 머리형태로 남자의 머리모양보다 훨씬 복잡하였으며 이로 고려시대에는 결발(結髮)형태에서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의 발전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풍속의 결발(結髮)형태를 이어 받았으며 대표적인 머리양식은 엷은머리 즉 “트레머리”라고 하고 쪽머리를 우리나라 상고시대부터 이어온 전통적인 머리양식이었다.

현대에 들어와서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은 토털 패션이 강조 되면서 개성을 추구하고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여보다 자연스럽고 손질하기 편한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조금씩 논셋트 업스타일이 미용 소비자의 욕구저하와 시대상의 의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현대에서는 논셋트 업스타일이 다양한 기법과 브레이드(Braid)의 기본 형태로 자리 잡아 인식되어지고 있다. 내림 형태에서 가체를 사용하는 기술과 묶음으로 꼬거나 땡는 모양의 논셋트 업스타일이 먼저 시작되어 변화, 발전된 것을 알 수 있다.

(2)서양의 논셋트 업스타일의 스타일 경향

① 이집트

이집트는 미용 역사상 예술적 공적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시기로서 머리 형태나 화장술은 현시대까지 영향을 끼치는 기법을 사용되고 있었다.

고대문화의 발상지인 이집트는 지리적으로 매우 더운 기후 조건을 갖고 있으며 피라미드 형태나 돔 사원의 모양형태에서 유래되어 웨이브를 연출할 때 이용되어진 도구가 원뿔모양으로 볼 때, 업스타일 연출이 응용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중류계층의 사람들은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하여 머리를 짧게 자르고 모자 또는 가발을 사용하였다.

여인들은 가발을 적게 땀은 다수의 머리를 모발에 땀아 늘였으며³³⁾ 짧게 깎아 낸 머리 위에 얹었다.

왕가가 다스리는 시대 전에는 남녀 모두 단발머리로 여성의 머리 형태는 남성보다 볼륨감 있게 한 가운데 가르마를 한 단정한 스타일 이었다.

같은 왕가가 통치자일 시대로 들어가면서 브레이드(Braid, 땀기)기법이 진보되었다. 두상의 몇 개로 구분하여 땀아 나선형의 쉼로 된 세 가닥 땀기의 브레이드 스타일에 상아, 나무로 만든 빗, 타조의 깃털 등을 장식하였다. 이 브레이드 스타일은 두발의 양이 많을수록 아름답게 때문에 모발의 분량을 늘리기 위해 인공의 머리카락이 이용되고, 이러한 결과를 위해 가발이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33) 강영숙 외(2004), 『웨딩 헤어 디자인』, 서울 : 훈민사, p.21.

또한, 직물 위에 땀은 두발을 고정시키기 위해 가장자리의 끈으로 맨 듯한 레이스 같은 방법으로서 두발 끝 부분은 수술이나 밀납으로 땀은 모양의 가발로서 앞이마를 덮어 장식한 스타일도 있었다. 이집트의 미용역사는 브레이드 기법을 활용한 가발의 역사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가발의 기교는 정교했다. 또한, 아름답고 우아하게 보이는 머리끈으로서 머리가닥을 조금한 다발로 매듭지어 금 고리를 끼워 넣는 방법을 사용해 머리의 흐트러짐을 방지하며 장신구로 되어 여성들이 즐겨하였다.

여자의 가발은 남자 것 보다 보통 길어서 어깨나 가슴 위까지 닿았고 땀은 방법, 가르마를 내는 위치, 묶는 방법, 같이 엮는 장식품에 따라 그 모양이 다양하였다.³⁴⁾

②그리스, 로마

그리스 시대의 머리 형태는 가장 순수하고 고전적이어서 오늘날까지 계속되어지는 스타일이며 그리스의 유명 조각자들의 작품의 머리모양은 미용의 기본 스타일의 하나일 정도로 조화와 균형이 좋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밀러의 비너스 머리모양은 그리스의 대표하는 것으로 가운데 가르마를 하여 뒤로 틀어 올린 쪽진 머리형태(쉬농, chignon)을 하고 있다.

그 외 나선상의 꺾을 몇 가닥으로 나누어 어깨나 등 뒤로 내리거나, 앞머리를 짧게 커트해서 이를 고리모양으로 만들어 이마에 북돋게 하였으며 브레이드(braid)를 길게 만들어 머리 모양에 둘러 핀으로 고정해 개성 있게 표현하였다.

그리스인들은 남·여 모두 머리를 기르고 자연스럽게 틀어 올려 장식하였으며 금발(金髮)을 아름답게 여겼기 때문에 자연적인 모습 그대로에서 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지배계급은 앞머리에 웨이브를 주고, 옆머리는 작은 고리 모양을 했으며, 뒷머리는 묶거나 늘어뜨리기도 하였다.

여자의 머리 모양은 풀어 내리거나 목에서 자유롭게 묶는 간단한 형태가 유행하였다.³⁵⁾ 후기에는 머리를 뒤로 틀어 올려 장신구로 장식하였는데 전체적인 모양은 뒤로 향한 원추형의 타래머리(chignon)형태였다.

로마시대의 스타일은 그리스와 거의 유사한 느낌을 주는 형태에서 그리스인보다 더 머리 빚는 것이 복잡하였고, 여성들의 머리는 가발과 땀은 머리를 사용하여 위로 틀어 올려 고정시키거나, 머리 둘레에 감은 정교한 스

34) 김희숙, 이은영(1996), 『메이크업과 패션』, 서울 : 수문사, p.17.

35) 김희숙, 이은영(1996), 전게서, p.19.

타일이 유행하였다.

로마의 대표머리로 뗏사리는 ‘투투라스(tutulus)’라고 하는 머리형으로 쪽으로 마무리 짓거나 얼굴의 둘레에 관모(冠毛)를 둘러싸거나 하였다. 머리가닥을 땀아 위로 올린 방법으로서 사용된 철제로 된 막대기에 약한 불로 데워서 나선상의 꺾이나 이마 옆머리에 붙인데 이용하여 논셋트 브레이딩이 셋트 브레이딩으로 첫 시도 된 시기일 것이다.

그 외 머리 가닥을 엮는 방법으로, 그 엮는 방법은 놀랍도록 복잡하고 변화가 풍부한 것으로서 머리 전체를 그물로 세공한 것처럼 해서 마무리 할 정도였다. 로마시대의 머리형태는 그 기법으로 짜 맞추어 만들어 내지만 그 변화의 수는 상당히 많았다.

③중세

중세 초기에는 통일과 분열이 반복되는 혼란의 시대였으며 중세 중기는 통일과 십자군 전쟁으로 대표되는 시기며 도시의 출현으로 사업이 활성화 되고 교역이 발달했다. 중세 말기는 교회나 귀족뿐만 아니라 새로 부상한 부르주아 계급과 도시 국가들에 의해 주도 되었다. 중세 문화의 조형적 특징과 침탑, 뽀족한 아치, 강한 수직적인 분할과 섬세한 장식적 무늬 창틀 등을 들 수 있으며 수식(首飾)에도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났다.

중세의 머리모양은 브레이드(braid) 기법을 사용한 스타일이 많이 엿보였다. 리본으로 쉬농(chignon) 스타일을 고정시키거나 세 가닥으로 땀아 두 개의 가닥은 갈라 아래로 내리거나 또는 한 줄로 땀아 꼬리처럼 내렸다.

세 가닥으로 땀은 머리는 길수록 좋다고 하여 정면의 아래로 내려 바닥 까지 다다를 정도로 땀은 모발(다리)을 사용하거나 긴 보자기에 충전물을 넣어 땀은 것을 머리에 달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머리의 베일(veil)을 걸쳤다. 13세기가 시작 될 때쯤에는 땀은 머리(다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종교가 생활 관습에 영향을 받아 그 이전 보다는 쇠퇴한 양상을 보였으며 젊은 여자는 머리를 느슨하게 늘어뜨리고 기혼부인은 대개 중앙에서 나누어 땀아서 양 귀를 덮는 스타일로 여성의 머리 형태는 가르마를 타서 양 옆으로 내리고, 뒷머리는 땀아서 위로 올렸다.

12세기에는 머리 위에 대부분 베일(veil)과 두건(wimple)을 이용하였다.

13세기에는 아래로 내려진 형태는 없어지고 땀은 머리가닥을 이마의 머리선의 말아 붙이기도 하여 양쪽 귀 위에 소용돌기 모양으로 마무리 짓기

도 하였다.

14세기에는 가르마를 중앙으로 갈라 브레이드(braid) 기법을 한 머리 가닥을 얼굴의 양쪽으로 꺾어 구부려 각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유행하였다.

미혼 여성들은 길게 땀은 머리를 금속이나 꽃으로 만든 둥근 관 모양의 필레(fillet)로 장식하였다.

비잔틴 시대의 젊은 여성들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기혼 여성은 일종의 쪽처럼 묶고 베일로 덮었다. 로마데스크 시대에 와서는 여러 색깔의 천을 섞어 땀아 리본으로 끝을 묶었다. 점차 긴 머리가 유행하자 가발까지 사용하여 그 길이는 무릎까지 내려오기도 했다.³⁶⁾

④르네상스

1453년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자 예술가, 학자들이 대거 서유럽으로 유입되어 중심문화권을 형성하였으며 이탈리아를 선두로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되어 서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그리스, 로마의 본질적인 인체의 아름다움을 살리려는 노력이 르네상스 시대에 부활되었으나 이 시기에는 관능적인 아름다움에 치중하여 인체미를 변형시킨 과장된 실루엣이 형성되었다.

르네상스기는 머리 형태에서도 큰 변화를 나타내 중세의 과장된 두식시대(蠹蝕時代)를 지나 아주 다양한 아름다운 머리 형태를 발견할 수 있는데 땀은 머리를 모두 감춰버리는 중세의 덮개를 벗고 머리 형 자체를 아름답게 모양 짓는 것을 최초로 시작한 것은 이탈리아의 여성들이었다.

르네상스기 머리형태에는 브레이드(braid) 기법의 사용보다는 논셋트 업스타일(non-set up style)로 표현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르네상스 초기의 머리모양은 리본을 서로 엮어 끈으로 만들어 어깨에 늘어뜨린 것과 가르마를 탄 앞머리를 턱선 정도 잘라 컬(curl)을 만들어 단발 형을 만들고 뒷부분은 업스타일 한 것이 많았다. 이후 중앙 가르마로 목 부분에서 말끔히 올려 이것을 리본을 사용하여 기교있게 머리가닥을 묶어 묶은 리본에는 진주나 비단으로 장식하고 머리 형태 표면에 리본으로 입체감을 주어 웨이브(wave)가 형성된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르네상스에는 여성의 머리모양은 중세 때에 머리를 감추기 위해 사용했던 장식들이 사라지고 두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염색과 모발의

36) 전선경(1994), 『서구 여성의 머리형태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4.

유기를 부여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했으며 향기로운 분도 사용하였다.

염색은 신분구분을 하기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며, 가발 사용이 성행하였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을 수십 개의 가발로 머리를 치장하였다. 이상적인 미의 기준으로 피부는 창백하고 투명하여 눈썹을 뽑아주었으며, 이마의 머리는 면도를 하여 넓게 보이게 하였다.

인간성의 존중을 목표로 문예부흥기시대에는 향장학이 하나의 독립분야로 나타났다. 남성들은 짧은 스타일로 강한 남성의 인상을 느끼게 하였으며, 여성의 머리는 단순하게 변하게 되었는데 앞 중심에 가르마를 타고 앞 이마를 전체적으로 내놓았으며 뒷머리는 목덜미에 있는 업스타일을 하였다.

⑤바로크

바로크 시대는 17세기를 일컫는데, 바로크(Baroque)는 스페인어의 베루카(barrucca)에서 연유한 것으로 ‘일그러진 진주’를 뜻한다.

17세기에 들어오면서 머리형태의 역사도 가장 흥미로운 시대로 접어들어 머리 형태가 상당히 많은 변화가 보여 지는데 이전에 행하였던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non-set braiding up style)기법에서 셋팅(setting)개념의 컬(curl)이 등장하였다.

17세기 이후 여성의 머리형태의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였는데 미용을 전문 직업으로 하는 상파뉴와 라·마르탕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들은 최초의 남·여 미용사 였다.

바로크 시대에는 여성들의 머리형은 칼라(collar,깃)둘레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해왔다. Collar가 높을 때 머리형도 높아지고 Flat collar 일 때는 어깨 위로 자연스럽게 컬을 해서 늘어뜨렸다.

또한 포마드를 사용하여 곱게 빗어 이마 위로 높게 올려 묶어 리본, 보석, 새털, 장미꽃 등의 화려한 장신구로 사용하였으며, 선호하는 향수와 분을 사용하여 머리에 발랐다.

루이13세는 긴 머리를 선호했지만 머리술이 적어 가발을 착용하였다. 이는 머리형태에 대한 취향이 뚜렷하여 가발의 형태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발전된 양상을 보였다.

루이 14세 시대에는 귀족적인 의상에 따라 머리형도 논셋트 업스타일을 하기보다는 셋팅 업스타일을 기교적으로 되어서 풍땡쥬(fontange)라는 우

아하고 기교적인 머리형이 나타났다.³⁷⁾ 또한 양옆의 타래 머리를 사용하여
결된 머리가 술이 많아 보이게 하였다.

1670년부터 시작된 정중선 가르마를 하여 양볼에 닿게 앞으로 내려뜨린
후, 귀 뒷부분의 머리가닥과 함께 꼬아 양옆으로 2,3개씩 긴 결을 만드는
방법으로 뒷머리 형태는 변함없는 쉬농(chignon) 스타일을 하였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향은 애교머리(bang)기법을 들 수 있는
데, 극히 가볍게 이마에 결(curl)을 한 머리가닥을 늘어뜨리는 형태를 하였
다.

바로크 시대는 결을 잘 말아서 전체 머리를 화려하고 크게 표현을 한 것
으로 보아 논셋트 업스타일을 지양하지 않은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⑥로코코

로코코의 어원은 프랑스어로 로카유(rocaille)와 코키유(coquille) 인데 이
는 정원에 장식된 조개껍데기나 작은 돌의 곡선을 의미한다.

로코코 시대에는 절대 왕제의 엄격한 틀이 부드러워지고, 귀족 사회가 서
서히 몰락하면서 문화양식도 변모하게 되어 형식적이고 엄격한 규칙성을
머리고 감성적이며 쾌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섬세한 여성적 곡선과 장식, 리본이나 레이스, 프릴 등은 로코코 양식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로코코 시대는 머리가닥을 뒤로 빗어서 하나로 묶어 깔끔하고 우아하게
표현하였으며 점차적으로 그 높이가 높아만 갔다. 1670년대에는 결이 잘
된 머리로 전체로 화려하고 커다랗게 부풀린 참신한 머리형이 유행하였는
데, 이것은 ‘꽃밭’ 또는 ‘양배추 형’으로 불리었다.³⁸⁾ 여성들의 머리양식 중
18세기 초 부풀리지 않은 납작한 머리에 레이스로 장식된 작은 란제리 캡
을 쓰거나 리본으로 장식한 뽕빠두르 헤어스타일을 하였다.

이는 로코코 시대에 들어서면서 땃은 머리(braid) 기법은 없어지고 웨이
브와 결이 있는 머리 형태를 지향하였다.

1760년대에 이후에는 머리모양이 크고 높아져서 거대한 구조물처럼 되어
갔으며 1780년대에는 사상 최대의 건축적인 머리 형태가 애호되었다.

로코코의 대표적인 미인상으로 앙뜨와네뜨 여왕시대는 환상적이고 예술

37) 김희숙, 이은영(1996), 전개서, p.26.

38) 이귀영(2002), 『큐비즘 회화를 응용한 헤어스타일이 조형성 연구』, 대구카톨릭대하
교 석사학위논문, p.14.

적이며 화려한 기교가 극에 달았고 상상외의 헤어스타일로 여성들의 머리 모양의 관심도가 고조되었다.

머리 장식에 많은 관심이 집중된 시대로 머리 모양이 점차 높아지고 거대해졌으며 장식 역시 크고 화려했다. 이 시대의 유행사조는 머리형이 예술적이고 환상적으로 극에 달았으며 1820년에 들어서자 헤어스타일은 이마에 쥔으로 표현 연출하였다. 뒤에 쪽을 붙이는 등 상당히 공을 들여 다리를 머리 꼭대기에 달고 꽃과 우산, 빗을 사용 ‘아폴로 묶기(Apollo Knot)’라는 헤어스타일이 유행했다.

로코코시대에는 나이, 직업, 의상에 따라 가발이 매우 다양하게 착용되었는데 가발의 색은 흰색, 회색, 갈색, 검정색, 연한 황갈색 등이 일반적이었다.

⑦근대

근대에는 문화전반에 걸쳐 고전을 동경하는 신고전주의(neo-classicism)가 나타났으며 건축에도 그리스 식 열주와 돔(dome), 아치(arch) 등이 풍부하게 사용되었다. 신고전주의는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을 전후로 증자하여 19세기 초까지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모형으로 형식과 이성을 중시하는 유럽의 문화와 예술을 지배한 사조이다.

이 시기의 여성들은 18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고대양식의 경향으로 프랑스의 변영과 함께 독특한 엠파이어(empire)양식을 이루었다.

혁명기의 여성들은 구불거리는 거창한 머리 위에 호화스러운 깃털장식의 넓고 둥근 모자를 즐겨 썼으며, 집정내각과 왕정시대에는 고대 양식의 머리 형태가 유행하였다.

19세기에는 극단적으로 머리 모양이 과장되어 의상과 함께 짧은 모발을 모자로 장식하였으며 점점 길어지면서 굵은 쥔을 이용하여 볼륨을 살려주는 39)스타일로 하면서 여성적이고 암전하면서도 품위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 시대에는 간단한 엽스타일을 좋아했는데, 머리 가운데에 가르마를 두고 쥔된 머리를 양쪽으로 암전하게 빗어 넘기거나 쥔된 머리를 틀어 엮은머리 뒤로 높게 올리고 일부의 머리는 내려놓는 스타일을 하였다. 또한, 둥글게 감거나 땡은 머리를 높게 다듬어 머리모습 전체 가름해보이게 하

39) 강영숙 외(2004), 전계서, p.21.

였으며 단정한 모습을 선호하여 모두 머리를 빗어 올리고 모자를 썼다.

머리는 빗, 머리띠, 리본, 깃털 등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꾸몄으며 터번, 레이스 장식과 고풍스런 모자 등이 유행하였고, 후기에는 리본으로 묶어 착용하는 포크 보닛(poke bonnet) 이 유행하였다.

1875년 마샬 그라또우가 컬을 만드는 마샬 아이롱을 발명해 컬이 도입되는 시원점이 되었다.

근대에는 짧아진 머리를 손질하는 기술이 발전하였고, 로코코시대에 이어서 컬과 웨이브로 머리를 장식한 스타일이 많았다. 땃은 머리(braid) 기법은 컬과 웨이브로 연출한 스타일에 종종 사용되어 단정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⑧ 현대

20세기는 과학의 발전으로 급진적으로 미용의 형태도 변화 하였다. 두발의 형태와 장식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짧은 헤어스타일에 챙이 넓은 모자가 유행하였다. 1905년 영국의 찰스 네슬러가 퍼머넨트 웨이브를 창안하면서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컬을 만들어냈으며, 1925년 독일의 조셉 메이어는 짧은 머리에도 퍼머넨트 웨이브가 가능한 기법을 고안했다. 1936년 영국의 J. B. 스피크먼은 열의 사용하지 않는 퍼머넨트 웨이브를 발표하여 혁신을 주었다. 염색제의 도입으로 다양한 염색과 그에 맞는 기법으로 변화를 주었고 의상과 메이크업 그리고 헤어의 조화를 이룬 토탈 미용개념이 확산되었다.

1990년대 대표적인 헤어스타일은 풍파두르 스타일(pompadour style)로 얼굴둘레의 앞과 옆의 머리카락을 위로 올려 느슨하고 풍성하게 머리를 땃고 큰모자로 머리를 커보이게 하였다. 1920년대 여성 머리형태는 혁명적인 것이었는데 급진적인 스타일은 1923년 하나의 패션으로 받아들여져 짧은 단발머리의 보브 헤어(bob hair)가 유행하였다.

1950년대 젊은 여성들이 영화배우들의 머리형태를 모방하면서 오드리 헵번의 짧은 머리와 불규칙한 앞머리가 유행하였다. 말꼬리 모양의 포니 테일(pony tail)에 리본을 묶은 스타일이 대표적이었다. 1960년대 초 부피감이 있는 머리형태가 유행하였는데, 머리 위로 올려 묶는 매듭, 쉬농, 폴

(fall), 브레이드(braid) 같은 머리 장식들이 이용되었다.

1970년대 머리형태는 펑크가 등장하면서 야성적인 헤어스타일이 나타났다. 다양한 퍼머넌트와 기하학적으로 자른 모양이 함께 유행하였다. 1980년대 초 어깨까지 늘어뜨린 웨이브 진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고, 부드러운 무스나 강한 젤 같은 혁신적인 펑크 헤어스타일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현대는 급진적으로 과학과 문화의 발전으로 매우 다양하게 미용으로 변화하였다. 두발의 형태와 장식은 개개인의 맞는 개성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고, 짧거나 긴 헤어스타일에 퍼머넌트 웨이브와 염색 등으로 발달하였다.

이는 퍼머넌트 웨이브의 도입은 논셋트 업스타일을 서서히 시술 작업의 빈도를 낮추어지게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양 논셋트 업스타일 스타일 경향에서 이집트의 미용역사는 브레이드 기법을 활용한 가발의 역사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가발의 기교는 정교했다. 또한, 아름답고 우아하게 보이는 머리끈으로서 머리가닥을 조금한 다발로 매듭지어 금 고리를 끼워 넣는 방법을 사용해 머리의 흐트러짐을 방지하며 장신구로 되어 여성들이 즐겨하였다. 그리스시대에는 앞머리를 짧게 커트해서 이를 고리모양으로 만들어 이마에 북돋게 하였으며 브레이드(braid)를 길게 만들어 머리 모양에 둘러핀으로 고정해 개성 있게 표현하였다. 로마시대에는 머리 가닥을 뿔아 위로 올린 방법으로서 사용된 철제로 된 막대기에 약한 불로 데워서 나선상의 컬이나 이마 옆머리에 붙인데 이용하여 논셋트 브레이딩이 셋트 브레이딩으로 첫 시도 된 시기일 것이다.

중세의 머리모양은 브레이드(braid) 기법을 사용한 스타일이 많이 엿보였다. 르네상스의 머리모양은 리본을 서로 엮어 끈으로 만들어 어깨에 늘어뜨린 것과 가르마를 탄 앞머리를 턱선 정도 잘라 컬(curl)을 만들어 단발형을 만들고 뒷부분은 업스타일 한 것이 많았다.

로코코에는 머리 장식에 많은 관심이 집중된 시대로 머리 모양이 점차 높아지고 거대해졌으며 장식 역시 크고 화려했다.

근대에는 극단적으로 머리 모양이 과장되어 의상과 함께 짧은 모발을 모자로 장식하였으며 점점 길어지면서 굵은 컬을 이용하여 볼륨을 살려주는 스타일로 하면서 여성적이고 얌전하면서도 품위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현대는 급진적으로 과학과 문화의 발전으로 매우 다양하게 미용으로 변

화 하였다. 두발의 형태와 장식은 개개인의 맞는 개성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고, 짧거나 긴 헤어스타일에 퍼머넨트 웨이브와 염색 등으로 발달하였다. 이는 퍼머넨트 웨이브의 도입은 논셋트 업스타일을 서서히 시술 작업의 빈도를 낮추어지게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논셋트 업스타일 스타일 경향과 서양 논셋트 업스타일 스타일 경향에서 셋팅 업스타일 형태보다 내림 형태에 묶음으로 꼬거나 땀는 모양의 논셋트 업스타일이 먼저 시작되어 변화, 발전된 것을 알 수 있다.

2. 논셋트 업스타일의 디자인 분석

1) 디자인과 형태의 분석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디자인과 관계를 맺지 않은 대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디자인의 모습이 매우 방대하게 산재해 있다. 디자인의 의미는 기존의 교육과 실무에서 디자인이라는 제도적 전문영역이 설정하고 있는 개념보다 훨씬 더 확대된 영역에서 삶의 의미를 다루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⁴⁰⁾ 디자인의 개념과 미용디자인의 원리를 순수예술로 보면서 미용적 방향에서 연구해 논셋트 브레이닝 업스타일 기술에서 디자인의 원리적 용을 학문적으로 체계화 하려한다.

순수예술(純粹藝術)은 순수하게 美 만을 추구하는 작업이라고 볼 때 디자인 기능을 먼저 생각하되 시각적(視覺的)으로 아름답고, 인간 생활과 직결되며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와야한다는 대전제 아래서 진행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 예술성에 기초하는 형태(形態)의 디자인과 과학에 기초하는 기능(Function)디자인의 통합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⁴¹⁾

디자인 어원과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옥스퍼드 사전에 의하면 어원은 15-16세기 불어의 '데생,desseing'과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라틴어 '디세뇨,

40) 김민수(2001),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서울 : 솔출판사, p.281.

41) 林然雄(1993), 『현대디자인론』 서울 : 학문사, p.12.

disegno'로서, 이 두 단어의 뜻은 '계획, 의도, 목적, 모델, 그림'을 의미한다.⁴²⁾ 또한 디자인(design)이란 라틴어의 데지그나레(Designare)에서 온 것으로 '계획을 기회로 명시한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다, 단어 적 뜻으로는 '어떠한 행동의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는 프로세스(process), plan 또는 설계라는 것으로 사용되며, 이는 목적에 합치(合致)하는 조형(造形)의 과정을 일관하는 계획, 즉 조형계획(造形計劃)이라고 할 수 있다.⁴³⁾

우리가 다소 디자인을 정의적(正義的)으로 정의하자면, 이는 인간생활의 목적에 따로 실용적(實用的)이고 미적(美的)인 조형(造形)을 계획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 즉, 실용적이고 미적인 조형의 촉각적 표현(觸覺的表現)이며 가시적(可視的)이라고 할 수 있다.⁴⁴⁾

디자인은 그 대상물이나, 문화현상 등과 인간 사이의 “대화(커뮤니케이션)”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디자인은 선, 면, 형, 색채, 명암, 질감 등의 디자인요소를 사용하여 다양한 심벌을 구성, 제시함으로써 대상의 특징이나 이미지를 가장 알기 쉽게 인간에게 전달하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인은 더 나아가서 그 물건을 소유하거나 착용한 사람의 신분이나 라이프 스타일 등의 사용자에게 대한 정보까지 암시해 준다.⁴⁵⁾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19세기에는 지금까지의 기술이 주도하였으며, 기능, 현실성, 가격 등이 중요시되었다. 20세기에는 첨단기술이 주도한 반면에, 21세기에는 인간중심의 기술이 주도하게 되어 보다 안락감, 즐거움, **용**도가 중요시된다.

미용디자인은 다른 조형디자인과 비교해 볼 때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미용 디자인의 최종 목표는 소비자(고객)이다. 따라서 미용 디자인의 질은 고객과 미용기술의 상호작용에 따라 평가 되어야한다.

둘째, 미용의 미의 기준은 시간이 지남의 따라 변화 하므로 미용 디자인은 시간의 개념을 포함하는 4차원적인 예술로 접근되어야 한다. 미용 디자인의 목표는 이러한 특성에 대한 이해 위에 설정되어야하며,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미용 디자인의 특성을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미용 디자인은 매우 종합적이며 다양한 기준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42) Harold Osborne(ed.), The Oxford Companion to Ar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1970), p.311.

43) 林然雄(1993), 상계서, p.11.

44) 林然雄(1993), 전계서, p.11

45) 이연순(2000), 『21세기 생활과학과 디자인』, 생활과학논집 제4권 제1호, p.104.

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훌륭한 미용디자인은 우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 목표를 이르기 위한 원리의 적용을 말한다.

미용디자인은 단순히 시·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형태의 ‘외관을 치장하는 노력의 산물’이며 개념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다원적이고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다.

미용디자인 원리 적용 방법에서는 5가지를 들 수 있다.

①균형(Balance)

균형이란 시각적인 무게에 의해 평형을 이루는 것으로, 안정되고 아름다워 보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디자인의 원리이다.⁴⁶⁾ 모든 형태는 심리적으로 힘의 지배를 받으며, 무겁고, 가벼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중심의 존재에 의해서 안정감을 갖는 것이다. 좋은 균형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중요한 미적요인이다. 균형은 물리적인 질서임과 동시에 심리적인 질서이면서 마음속의 안정요소로서 인간의 본능적인 감각의 이상을 느낀다. 균형은 상하 좌우가 균등하게 배분된 힘에 대한 감각으로 평형, 조화, 안정 등을 느끼며, 크게 대칭 균형(symmetry)과 비대칭 균형(asymmetry)의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눌 수 있는데,⁴⁷⁾ 대칭균형은 권위적이며, 형식적인 반면, 비대칭균형은 동적, 융통성,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며 한 점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이루는 방사균형이 있다.

구분	대 칭	비 대 칭
정의	통일 원리로서 작용하는 성질	변화 원리로서 작용하는 성질
특징	·정돈성 : 엄격한 느낌 ·안정성 : 정적, 편안함의 느낌 ·정관성 : 조용하게 관찰한	·비정돈성 : 엄격한 느낌이 없고, 질서를 잃은 느낌의 긴장감을

46) 고성현 외(2002), 『컷디자인』, 서울 : 수문사, p.15.

47) 기린인증원교재편찬위원회(2001), 『도털코디네이션』, 경산대학교출판부, p.43.

상태 ·단정 : 바르고 정리되어 있는 느낌 ·엄숙 : 정숙하며 마음이 긴장되는 느낌 ·단순성 : 섞인 느낌이 없으며 복잡하지 않고 깔끔한 느낌	완화시키는 효과 ·비정관성 ·운동성 : 생동감, 활동성 ·복잡성 : 뒤얽히고 섞인 듯한 느낌
---	---

<표1 - 대칭과 비대칭의 미적효과 >

②리듬(Rhythm)

리듬은 일련의 연속적인 움직임이 있는 형태를 말한다. 리듬은 보는 이의 눈길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힘이 되며 반복되어 짐은 미용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분위기를 결정하며 미용 각 부분에 연계성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 머릿결의 웨이브도 연속적인 표현이라든지 점점 크거나 점점 작아지는 등의 반복되어지는 표현을 의미한다.⁴⁸⁾ 리듬은 연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점진적으로 변하는 모양을 갖는 운동이 디자인을 보고 리드미컬하거나 리듬이 결여되었다고 말하지만 헤어스타일의 경우 운동의 강약에서 반복의 모양이 느껴지는 연속 운동이 느껴지는 것을 리드미컬이라 한다. 반대로 운동의 강약, 반복의 모양이 불규칙이거나 시각적으로 상패한 운동감을 느낄 수 없는 것을 리듬이 결여되었다고 한다.

③조화(Harmony)

48) 고성현 외(2002), 전계서, p.16.

조화는 서로 다른 디자인 요소들의 조합되거나 대비되었을 때 각각의 요소가 이질감 없이 서로 잘 융화되어 질서 있는 미적효과를 만들어 내는 상태를 말한다.⁴⁹⁾ 서로 비슷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유사조화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주고 대비조화는 극적이며 다이내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개성 있고 화려하다. 조화를 맞춘다는 것은 하나의 조형물에 있어 부분과 부분, 전체와 부분의 상호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묶어 안정된 상태를 만드는 것으로, 상관성에 따라 완성되기까지 과정을 안내하는 것 이다. 조형물을 잘 관찰한다면 여러 가지 집합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강조(대조)

시각적으로 전체를 지배하는 중심요소와 이를 보조하는 다른 요소들은 서로 종속의 관계를 이루며, 서로 대비되어 강조의 효과를 만든다.⁵⁰⁾ 강조는 모든 미용 디자인에서 반드시 강조점이 있어야 하며 그 강조점은 하나 이어야 한다. 훌륭한 미용디자인은 보는 이의 시선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각각의 부분이 서로 어울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처음의 눈길을 집중시킬 수 있는 강력한 중심점이 필요하며 즉, 미용디자인의 주된 강조점이 뚜렷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강조점을 지지,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강조의 원리에서 주와 종의 원리가 중요한 만큼 빼놓을 수 없다. 강조의 심리적 효과는 보이는 이로 하여금 긴장감을 주는 것이다. 단조로움과 산만함 속에서도 통일을 중점으로 디자인하게 되면 전체가 긴장감을 갖게 된다. 엑센트의 심리적 효과는 보는 이로 하여금 긴장감을 주는 것이며 단조로움과 산만함에서도 통일을 중점으로 디자인하게 되면 전체가 긴장감을 갖게 된다.

⑤비례

49) 기린인증원교재편찬위원회(2001), 전제서, p.45.

50) 기린인증원교재편찬위원회(2001), 전제서, p.46.

비례는 일정한 크기에 대하여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말하며 대표적인 비례방법으로는 고대에서부터 가장 아름다운 비율을 사용한 황금분할(1:1.1618)이 있다. 미용 디자인 과정에서 1차원의 선, 2차원의 평면형, 3차원의 입체형을 구성하는 부분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며, 이때 적용시킬 수 있는 디자인의 원리가 비례이다. 좋은 비례는 균형과 조화 안정감을 표현하며 조화롭게 고려한 비율 사용은 디자인을 제시하는데 효과적인 디자인 원리라 할 수 있다.⁵¹⁾ 비례의 원리를 살펴볼 때 기본이 되는 개념은 중요시하되 비율적 숫자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며 인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비례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유행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미용디자인은 원리와 요소를 조화롭게 적용함은 조화는 모든 조형 디자인의 목표이며, 조화된 상태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낀다.⁵²⁾

미용디자인의 목표로서 디자인 요소의 조화는, 디자인 된 순수한 미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수한 조형미를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화된 상태는 ‘변화 있는 통일(unity with variation)’에 의하여 이를 수 있으며, 미용 디자인에서도 디자인 요소들을 통일되면서 변화 있게 사용함으로써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조화의 기본은 통일이며, 통일은 일관성을 의미하여 디자이너가 작업적 기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미용 디자인의 목표는 순수한 미적 측면에서의 조화(Harmony)와, 소비자의 개념을 포함하였을 때의 적합성(Appropriateness), 시대적 미의 부분인 시기(time)로 나뉜다.

이에 디자인 활동에 적용되는 지식체계가 앞으로 전개될 디자인의 전문성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의 지식체계는 바로 디자인 프로세스의 자체 연구에서 시작되며 형성되는 것이다.⁵³⁾

이에 미용디자인의 최종 목표는 인간의 감성을 기술과 미용 디자인에 적용함으로서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에 부응하여 미용디자인을 행함

51) 기린인증원교재편찬위원회(2001), 전개서, p.43.

52) 이은영(1997), 『복식의장학』, 서울 : 교문사, p.68.

53) 존&에브릴블레이크(정경원 역)(1993), 『현대디자인의 현실과 이상』, 서울 : 미진사, p. 93.

으로서 경쟁력도 높게 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 형으로 변모됨에 따라 디자인의 중요성이 다시 크게 거론되고 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있다.⁵⁴⁾

2) 형태미에 의한 분석

형태(Form)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형(形)’이라고 표현된다. 형태는 오늘날 우리가 환경이나 시각언어, 도구의 형태 등과 같은 구체적 형상을 위해 미술과 예술학의 기존 언어로 인식된 것으로 자연과 문화 속에 내제된 여러 가지 형태의 단어로 정착되고 있다.⁵⁵⁾

형태를 ‘어패런트 이미지(Apparent image)’라고 하는데 이 어패런트 이미지가 원, 삼각형 등의 면의 특성을 갖게 될 때 셰이프(Shape:形), 이것이 발전해서 4각 원기둥, 원통 등 용적(容積)과 방향을 드러내는 전체가 되었을 때 폼(Form)으로 규정한다. 점, 선, 면, 매스(Mass), 톤(Tone), 볼륨(Volume)과 공간(Space)이 포함된다.⁵⁶⁾

형태에는 구상적 형태와 추상적 형태가 있으며 물건 표면상의 면적이나 입체의 실루엣 도형이다. 형태의 심리적 특징은 각자의 형태가 형성된 윤곽선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징보다 현저하게 특징지어지고 있다.⁵⁷⁾

형 태			
직 선 형		곡 선 형	
기하직선형	자유직선형	기하곡선형	자유곡선형
안정·신뢰·확실· 강렬·명료·질서· 간결	강렬·예민·직접성· 남성적·대담·활발· 명쾌	직선보다 부드러우나 수리적인 질서가 느껴진다. 명료·자유·이해·확	기하학적인 질서를 갖고 있지 않은 곡선이기에 아름답고 매력적이지만

54) 정경원(1993, 『미래의 경쟁, 디자인에 달려있다』, 서울 : 디자인하우스, p. 3.

55) 김태호, 김홍규(2002), 『21세기현대디자인사전』, 서울 : 조형사, p. 65.

56) 林然雄(1993), 전계서, p.166.

57) 권상구(1997), 『시각디자인의 기초』, 서울 : 미진사, p.89.

		실·정연	추한형도 많다. 우아·여성적·유연 이며 불명료이거나 무질서가 된다.
--	--	------	--

<표2 - 형태의 특징⁵⁸⁾>

형태를 이루는 기본요소의 특징이나 해석, 또는 다양한 활용을 시각적으로 연구하거나 학습할 기회는 흔하지 않다. 이러한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시각화된 디자인 과정에서 구상력과 창의력을 가져다준다.⁵⁹⁾ 디자인으로서 각각의 기술을 어떠한 근거와 태도로 선택하느냐에 따른 결정에 따라 얼마만큼의 미적 가치와 효용가치를 갖는가의 의도한다면 가볍게 볼 수 없다.

미를 결정하는 성질에는 미적 대상의 비례, 질서, 균형, 조화, 등의 형식적 성질과 정신, 이념 같은 추상적 실체로 보고 이를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곧 아름다운 사물이 지니는 객관적인 성질이라는 것이다.

예술과 학문에서는 일정한 원리와 유용성, 규칙이 있으며, 이것들을 주의 깊게 포착하고 응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향을 가장 아름답게 성취해 내는 것이라고 했다.⁶⁰⁾ 미용과 예술을 같은 느낌을 지니는 특성적 외관의 형식을 조형적인 면에서 표현한다는 유사점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의도하고자 하는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기 위해서 미용과 예술 디자인 모두 형상화 되기까지의 과정이 아주 중요하며 그 과정은 기초를 이루는 디자인 원리와 요소로 이루어진다. 또 예술로서의 미용과 디자인은 머리 형태와 외형적인 몸 실루엣의 기능적인 요소만을 만족시키는 것보다는 더 큰 무엇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미용과 디자인의 물리적 표현이 인간행동을 충족시키는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형태와 시각요소들을 배열하고 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용과 디자인에서 어떻게 의미를 끌어내며 전달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 머리 형태와 외형적인 몸 실루엣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58) 권상구(1997), 상계서, p. 89.

59) 차룻왈쉬레저, 신디아부-스나이더(원유홍 역)(2002), 『디자인의개념과원리』, 서울 : 안그래픽스, p.82.

60) Tatarkiewicz, W. 이용대 역(1998), 『여섯가지 개념의 역사』, 서울 : 이론과 실천, p. 238.

미용의 예술성이란 단순히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로서의 조형을 통해 그 목적이 달성된다.

다시 말하면 미용양식에 일반성과 보편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용 예술 역시 한 시대에 이루어진 미용양식들을 관통하는 일반성 및 보편성으로서의 특징을 찾을 수 있을 때 이를 형식(style)이라 한다.

머리 미용을 만들기 위한 형식은 그 시대의 미적 기준을 바탕으로 그 시대의 정신 사상, 정서 내지는 미적가치를 표출하고 있다.

미용과 예술을 같은 느낌을 지니는 특성적 외관의 형식을 조형적인 면에서 표현한다는 유사점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의도하고자 하는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기 위해서 미용과 예술 디자인 모두 형상화되기까지의 과정이 아주 중요하며 그 과정은 기초를 이루는 디자인 원리와 요소로 이루어진다.

또 예술로서의 미용과 디자인은 머리 형태와 외형적인 몸 실루엣의 기능적인 요소만을 만족시키는 것보다는 더 큰 무엇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미용과 디자인의 물리적 표현이 인간행동을 충족시키는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형태와 시각요소들을 배열하고 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용과 디자인에서 어떻게 의미를 끌어내며 전달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 머리 형태와 외형적인 몸 실루엣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종래에는 미용디자인의 미 연구는 주로 객관적 의미의 미로 이해되고 연구되어왔다. 보는 이로 하여금 기쁨을 주게 되는 것이 미적이라 한다. “성토마스 아퀴나스”는 ‘즐겁게 하는 것은 바로 지각하는 것’이 즉 ‘아름다움’이라고 불렀다. 즉 미용디자인의 미를 결정하는 성질은 미용의 형식적 성질이나 그것이 표현하는 보편적 이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머리형태선, 머리 색채, 머리질감 등의 미용의 형태적 특성은 미용 디자인의 요소로 비례, 질서, 균형, 조화 등의 형식적 성질은 미용 디자인의 원리로 이용되고 있다. 선, 색채, 재질 등의 디자인의 요소를 미용디자인의 원리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여 머리미용을 구성함으로써 미용디자인의 미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미용에 있어서 미의 실현은 즐거움을 준다는 것으로 타고난 감각과 영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과학적 접근과 집중력을 통해 형성된다. 미의 실현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며 아름답게 가꾸어 주는 것은 디자인 영역에서 기능적 측면과 함께 형태와 색채, 질감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디자인 형식원리의 하나로서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와의 수량적

관계, 즉 면적과 길이의 대비 관계를 말하며 면적의 분할에서 황금분할은 그 분할비례가 너무나 이상적이어서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다.⁶¹⁾

미용디자인의 형태미를 머리형태선, 머리 색채, 머리질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러한 형식적 요소가 통일적 결합관계 속에서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 조형미를 이룰 수 있다.

미용디자인 형태미에는 3가지로 볼 수 있다.

①머리 형태(두상 형태)

미용 디자인 측면에 형태는 다양한 방향에서 확장이 가능한 볼륨과 부피를 말한다.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앞, 위, 옆 그리고 뒤를 비롯하여 모든 각도에서 살펴야 한다. 미용 디자인은 모양과 방향, 크기로 이루어지며 이 구성 요소는 완성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디자인 내에서 머리의 방향은 움직임을 뜻하며 디자인의 역동성에 중대 역할을 한다. 머리 형태의 윤곽을 갖는 방향성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볼륨방법을 찾아야 한다. 얼굴형은 구심적 형과 원심적 형으로 나뉘며 둥근 얼굴은 구심성과 원심성을 교류시키면서 조화시켜 가는 것이 얼굴의 윤곽을 커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기본적인 법칙으로 원심적 형의 얼굴에는 구심적 형의 볼륨으로, 구심적 형의 얼굴에는 원심적 형의 볼륨을 아름답게 조화시킨다. 계란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얼굴형에 맞추기 위해 볼륨의 가감을 더한다.

②머리 질감

61) 김태호, 김홍규(2002), 전계서, p. 64.

재질은 형과 색채와 함께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미용디자인을 표현하고자 하는 머리형과 머리색은 미용디자인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가시화되며 머리질감은 표현되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질감은 머리형과 머리색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질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보이므로 디자인 구성의 조화가 필요성이 높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미용디자인의 구사할 때에는 다양한 머리질감을 통하여 개성이나 구별력을 표현할 수 있어 유행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질감은 어떤 표면의 모습이나 성질을 묘사하는 것이다. 부드럽거나 곱슬거리거나 거칠거나 울룩불룩하거나 매끈한 것과 같은 성질로 질감은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 후각적으로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경험한 느낌의 영향도 받는다. 디자인 요소로 질감을 별도로 보는 것이 전체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이점이 있다. 여러 감각이 혼합되어 지각되나, 느낌을 일으키는 중요한 감각으로는 촉각과 시각을 들 수 있다. 재질은 형과 색채와 마찬가지로 평이하고 특징이 없는 재질의 경우 시각적 무게가 적으며 특이하고 장식성이 클수록 시각적 무게가 커진다. 질감의 대비가 디자인의 중심이 될 때에는 질감의 대비를 크게 하며, 특이한 머리질감은 강조점의 기능을 갖도록 적은 면적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③머리 색

색은 어떤 디자인에 깊이 차원과 빛의 반사를 더해주는 요소이다. 고객의 모발 색상에 맞춰 작업하기에 최종 디자인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머리색은 질감의 착시현상을 주어 머리 형태 또는 두상의 한 부분으로 시선을 집중시킨다. 색채의 시각적 무게는 각 색이 고유하는 색상, 명도, 채도에 따라 결정된다.

색은 일반적으로 난색이 한색에 비하여 큰 힘을 갖는데, 이유는 난색이 갖는 팽창효과, 전진효과 등이 기인한다. 색상의 효과는 채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난색이라도 저채도면 난색의 효과가 강하지 못해 시각적 무게가 낮아진다. 이는 저채도의 난색은 고채도의 한색보다 약한 힘을 갖게 된다. 두 가지 이상의 색을 한 머리 미용 디자인을 할 때 각 색이 차지하는 면적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색의 비례의 원리를 적용시킬 때 면적의 차

를 두는 것이 좋다.

3) 논셋트 업스타일 기법의 의한 분류

논셋트 업스타일의 기법은 땃기(Braid), 매듭(Knot), 겹치기(Over Lap), 꼬기(Twist), 말기(Roll), 고리(Loop)에 의한 분류로 구분하여 본 논문에서 6가지의 기법을 고찰하였다.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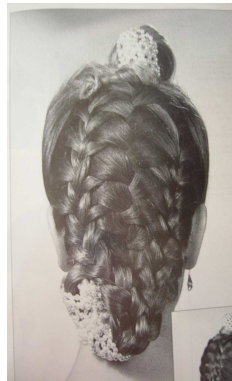
(1) 땃기(Braid)

땃기란 세 가닥, 네 가닥이나 그 이상의 머리가닥을 교차하거나 엮는 것을 손이나 기계를 이용하여 땃는 것을 말한다. 땃은 형태는 서로 교차하는 대각선 구조를 가지면서 납작하거나 원통의 모양을 갖는다. 땃기는 미용 디자인에서 주로 머리가닥의 풀림을 방지하거나 장식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땃기에 사용된 머리가닥 수에 따라 구분되어지며 땃기의 크기는 가닥의 굵기와 크기, 그리고 섹션의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어진다. 땃기에 중요한 것으로는 희망하는 결과에 따라 섹션의 방법적 구성형태는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땃기의 원리는 동일하다. 땃기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천체축이 어느 방향의 선으로 결정되어지는가에 나타낼 수 있다. 머리 형태에 따라 두피에 밀착형 땃

기를 하기 위해서는 두상을 똑바로 한 다음 두상이 움직이지 않도록 손가락을 두상에 밀착하여 시술하며 후두부에서는 두상을 앞으로 숙여서 밀착하여 시술한다.



[사진1]⁶²⁾



[사진2]⁶³⁾



[사

진3]⁶⁴⁾

(2) 매듭(Knot)

매듭이란 머리가닥이나 끈 또는 실을 매어 마디를 이룬 것이거나, 머리가닥이나 끈 또는 실을 소재로 하여 엮거나 마디를 짓거나 고를 내거나 여러 가지 무늬를 만드는 일, 또는 그렇게 만든 장식품이다. 매듭의 기원은 인류가 최초로 덩굴이나 끈 등을 이용하여 나무막대 끝에 돌을 묶어 원시적인 도끼를 만들 때로 비롯된다. 좋은 매듭은 매듭을 지었을 때 미끄러지지 않아야 하며 또한 손쉽게 묶고 풀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매듭은 머리가닥을 한 가닥 또는 그 이상을 함께 엮거나 묶어주는 방법으로 구성되어진다. 동일한 방향의 리듬을 가진 매듭은 시선을 중앙으로 모아주며 균형의 안정적인 비례를 연출한다. 비대칭형의 섹션의 방법에서 페이스라인에 매듭을 형성하면 네이프 라인에서는 타래모양으로 매듭형태가 표현된다. 매듭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디자인 연

62) Ana Maria Lopez y Jesus Priego, EL ARTE del Recogido (España: PELUQUERIAS DE SELECCION, 1999), p.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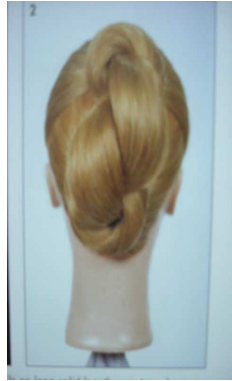
63) Ana Maria Lopez y Jesus Priego, 1999, 전제서, p.43.

64) PIVOT PIONT, Long Hair design forum (Chicago : Pivot Point Inc., 2001), p.21.

출이 가능하여 한 가닥 또는 그 이상 머리가닥들의 작업이 행하여 질 때 전체 디자인에서 하나의 구성요소로 작용되어 방향이나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연출할 수 있다.



[사진4]⁶⁵⁾



[사진6]⁶⁷⁾



[사진5]⁶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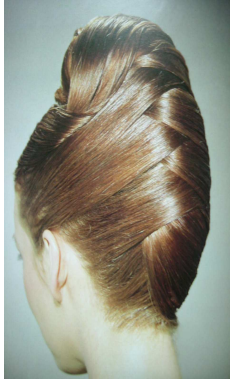
(3) 겹치기(Over Lap)

겹치기란 어떤 대상물이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겹쳐지는 것으로 중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겹치기에는 두 가닥을 서로 반대편 가닥 위로 십자로 겹침에서 그 형태의 효과를 얻는다. 가닥의 굵기나 섹션의 방법의 차이에 따라 완성된 겹치기 형태의 십자형 패턴의 영향을 생긴다. 완전한 겹치기 형태를 가기 위해 각 섹션이 겹치도록 손을 두상의 곡면에 90도로 세워 시술하며 시술 각은 그대로 유지한다. 네이프 부분을 시술 할 때에는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텐션을 준다.

65) 패트리카메론 최근희외 역(2003), 『긴머리 업스타일』,서울 : 예림, p. 42.

66) PIVOT PIONT, Long Hair (Chicago : Pivot Point Inc.,1996), p.21.

67) PIVOT PIONT,1996, 상계서, p.51.



[사진7]⁶⁸⁾



[사진9]⁷⁰⁾



[사진8]⁶⁹⁾

(4) 꼬기(Tw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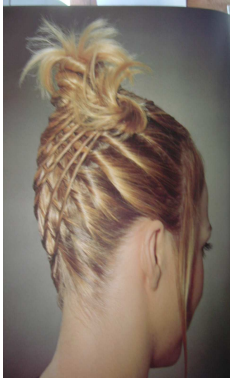
꼬기란 나선상으로 돌리며 얹히게 하여 휘감거나 비틀어 뒤틀리게 하는 기법을 말한다. 빗줄 같은 형태를 표현하게 위해 한 가닥 또는 두 가닥 이상의 머리가각으로 말리거나 회전하는 것이다. 머리가닥의 굵기와 머리가닥과의 긴장력으로 꼬기의 형태가 결정된다. 굵기와 텐션은 다양하게 변화가 가능하여 굵고 느슨한 끈 머리가닥은 동양적인 느낌을 주며 얇고 탄탄하게 끈 머리가닥은 진보한 느낌이 표현된다. 꼬기의 위치 점과 굵기와 텐션의 변화를 주며 무한한 창의력이 발휘되어 다양한 미적 효과를 얻을 수 있

68) PIVOT PIONT,1996, 전게서, p.94.

69) 한성진(2005), 『Up&Up한성진의 15분업스타일』,서울 : 드림북, p. 126.

70) 임호순 외(2004), 『헤어디자이너를 위한 업스타일』,서울 : 성화, p.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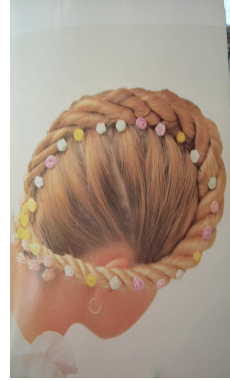
다.



[사진10]⁷¹⁾



[사진11] ⁷²⁾



[사 진

12]⁷³⁾

(5) 말기(Roll)

말기란 굴리거나 회전하여 굽이지는 모양으로 둥글러지거나 뿔뿔 말려 줄아 동그랗게 말려 만드는 것이다. 말기는 머리가닥 모양 그대로 겹쳐서 감겨지는 것이다. 수직 축을 따라서 목덜미에서 기시점으로 하여 위로 상승해가면 마는 수직 롤, 평행한 곡선을 따라 마는 윤곽 롤이 있다. 유행 경향과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롤의 형태는 다양해지며 머리길이에 따라서도 결정되어 진다. 주로 말기는 원통형과 원뿔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말기의 방향이

71) 패트리카메론 최근회외 역(2003), 전게서, p.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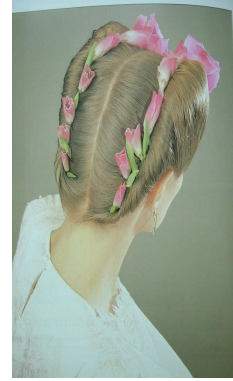
72)Ana Maria Lopez y Jesus Priego,1999, 전게서 p.9.

73)NELSON SABARIZ, TRENZADOS Y RECOGIDOS (Spain: M&B PUBLICACIONES,1994), p.47.

시계방향, 시계반대방향, 양쪽 방향으로 나뉠 수 있다.



[사진13]⁷⁴⁾



[사진14]⁷⁵⁾

[사진15]⁷⁶⁾

(6) 고리(Loop)

고리란 줄이나 끈 그리고 머리카락 등을 구부리고 양 끝을 맞붙여 둥글거나 모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하나하나의 구성부분 또는 그 이음새를 이르는 것으로 머리가닥을 구부리거나 접어서 곡선형으로 고정시키는 것이다. 머리가닥으로 고리를 만들 때에 손가락의 위치에 따라 고리의 크기가 결정되어지며 고리의 수가 증

74)NELSON SABARIZ,1994, 전게서,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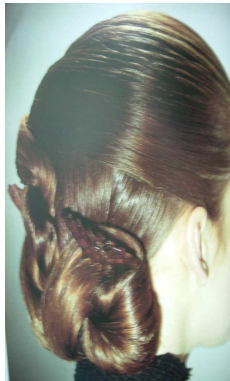
75)NELSON SABARIZ, TRENZADOS Y RECOGIDOS VOL.3 (Spain: M&B PUBLICACIONES,1994), p.28.

76)NELSON SABARIZ. VOL.3,1994, 상게서, p.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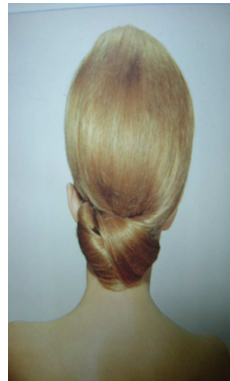
가할수록 디자인의 패턴은 복잡해진다. 고리는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어 부피형성과 형태의 확장으로 볼륨을 연출할 수 있다. 고리는 백콤(Back Comb) 처리로 결과 결을 연결시켜주어 여러 모양으로 변형될 수 있어서 볼륨과 형태 그리고 방향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 고리의 형태적 특성은 디자이너가 감각적인 창의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미용 디자인 연출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진16]⁷⁷⁾



[사진17]⁷⁸⁾



[사진18]⁷⁹⁾

Ⅲ.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 기법의 기술적인 방법

77) 패트릭카메론 최근회외 역(2003), 전게서, p. 64.

78) 패트릭카메론 최근회외 역(2003), 전게서, p.78.

79) 패트릭카메론 최근회외 역(2003), 전게서, p.108.

논셋트 업스타일에서 브레이딩 기법은 논셋트로 두발의 매끈한 질감에 강조와 변화를 주어 조화로운 균형 속에 미용 디자인의 예술적 표현을 나타내준다.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은 미용디자인의 머리형태, 머리 색, 머리질감의 요소의 조합적인 원리를 적용되어진다. 디자이너의 창의력과 기술력, 유행을 리드하는 주관으로 조형성을 나타난 표현하여 응용되어지고 있다.

미용 디자인에서 땃기 기법이 미용에 응용된 사례는 브레이드로 표현된 사례가 지역과 시대별로 많이 나타났다.

브레이드 헤어(braid hair)란 수 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미용기술로 단군 신화 때부터 편발을 하였고 역사성과 전통성을 가져 동서고금을 만론하고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다. 또한, 적도 지역에서는 더위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브레이드 기법이 활용되어 흑인들이 즐겨하는 헤어스타일로서 3가닥 혹은 4가닥으로 땃거나 머리가 짧은 경우 인조모를 이용해 길게 붙여서 만드는데, 이렇게 땃은 머리를 총칭하여 브레이드 스타일(Braids style)이라 한다.⁸⁰⁾ 머리가닥을 잡는 방법으로는 손가락 사이에 머리가닥을 정확히 끼워 양쪽 손가락으로 머리가닥을 엮으면서 주고받는 형식으로 땃는 가닥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 가닥 땃기로 진행되어지며, 땃는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파악하면서 디자인의 섹션을 구분하여 진행할 때 정확성과 신속한 작업이 된다. 디자인별 섹션은 땃는 머리의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땃는 가닥의 균일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모발의 양을 일정하게 해야 한다. 땃기 기법에 따라 브레이드 헤어를 분석해 보면 모발의 섹션을 작게 구획하여 헤어 제품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모발정리를 하여 윤기와 탄력성을 부여한다. 다양한 섹션으로 땃기를 할 때에 끈으로 묶거나 핀을 사용하여 원하는 디자인을 창출해 낼 수 있다.

브레이드 헤어는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며 조형적 이론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연출이다. 브레이드 헤어는 머리가닥을 순서대로 땃아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 반복된 동작으로 엮어지는 것으로 땃는 단위수와 방법론에 따라 머리질감의 효과를 얻을

80) 이청자(2002), 『히피패션에 나타난 히피헤어스타일분석』, 중앙대 예술대학원, p. 69.

수 있다. 머리의 질감연출을 브레이드로 장식적 역할을 할 때에 디자이너의 기술력에 따라 장신적인 효과는 커지게 된다. 브레이드 헤어는 예술성이 큰 수공예적인 기술로서 디자이너의 가치와 창의적 표현력이 발휘되어진다.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은 디자이너의 수공예의 조형적 기술로 지역, 시대, 문화를 바탕으로 머리질감의 다양한 연출을 행하여 창의력 있는 개성연출을 할 수 있는 미용 작업의 형태이다.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은 우리나라와 서양의 시대별 스타일 경향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미용기법 연출의 긴 역사를 지닌 미용 기술이며 많은 생활양식의 흐름에 따라 그 형태(形態)나 질(質)이 달라졌다. 이는 아름답고자 하는 욕망과 함께 가장 근본적인 시발점은 생활의 필요에 따라 활동적인 것을 원함에 따라 나타났다.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을 인지하여 기법 응용하는데 위해서는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의 이해와 지각이 필요하다.

지각은 사물에 대한 반복과 공통성의 특징이 묶어져 진실 된 것을 얻어낼 때 형성된다. 그러나 지각은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정보를 전달하는 신체적 전달매체로서의 감각을 필요로 한다.⁸¹⁾

인간은 다섯 가지의 감각인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청각을 가지고 있다. 이중 조형예술인 미용 디자인의 감상에는 시각과 촉각 청각까지를 활용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시각에 의존하여 얻어진 결과물은 형태지각으로 인지되고 있다. 지각은 인체의 감각을 통해서 인지된다.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의 감각적 인지에 대해서 보면 현대인은 고독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가 조직적이고 거대화되어 가고 있으며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조하는 경쟁사회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원화된 사회로 생활양식, 기호, 취미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개성이 발달하고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관, 사회, 정치적 신념으로 대립되는 양상에서 나타난다. 다섯 가지의 감각 중에서 특정한 감각에 상관될 수 없을 때에 이것을 감성이라 지칭하며 일반적인 인식의 집합개념이 포괄된다.

81) 신선창(2003), 『꽃을 이미지를 통한 감성적 조형 연구』, 조선대 대학원, p. 3.

1.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의 실질적 기법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에서 브레이드(Braid)란 머리가닥을 세 가닥으로 나누어 서로 교차시켜 엮어 가는 방법으로 땡는 머리를 이용하여 생기발랄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업스타일(Up Style)이다. 세 가닥 이외에 네 가닥, 다섯 가닥 땡기 등의 머리가닥을 늘여 가는 방법도 있다. 이는 머리가닥의 수가 증가되는 만큼 꼬이는 면의 면적도 넓어진다. 짝수 가닥으로 땡기를 하면 한쪽 사이드가 안땡기의 땡는 면이 되기 때문에 면의 좌우 대칭으로 하기 위해서는 홀수가닥으로 머리가닥을 늘여서 땡는 것이 좋다.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은 머리가닥을 조절한 손가락의 텐션을 이용해서 행하여지며 축축한 머리 위에 땡는 것이 좋다.

이는 두발의 땡은 정도는 오래 지속되고 적격한 스타일을 표현 하기가 용이하다.

브레이드(Braid)에는 머리가닥을 쥐는 방법으로는 땡는 머리가닥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인 세 가닥 땡기에서 손가락 사이에 머리가닥을 정확히 끼워 양쪽 손가락으로 머리가닥을 엮으면서 겹쳐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기본적인 테크닉인 세 가닥 땡기에서는 머리가닥을 세 개를 사용하여 좌우의 머리가닥이 중앙으로 겹치면서 엮어가는 방법이다.

브레이드(Braid)는 크게 두 가지로서 안땡기(Invisible Braid)와 겉땡기(visible Braid)로 구분되어진다. 안땡기(Invisible Braid)는 정수리부분이나 전두부 부분에서 주로 사용하며 머리가닥을 위로 겹침으로서 시술한다. 겉땡기(visible Braid)는 머리가닥 밑으로 땡아 겹침으로서 행하여지는데 머리가닥이 중앙 아래로 위치하는 것을 외에는 안땡기 기법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안땡기를 하면 면이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생기고, 겉땡기는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이 연출된다. 또한, 한 다발의 모발을 세 가닥으로 구분하여 중심가닥을 우측으로 빼면서 우측 머릿결이 중앙으로 가고 좌측 머릿결이 중앙으로 겹쳐지는 반복동작에 의해 엮어지는 기법을 디스코 땡기라 한다.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의 블로킹(Broking)방법은 디자인에 따라 땅을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결정해서 땅기 전에 목적에 맞는 블로킹을 하고 시술하는 것이 정확성과 민첩성을 하는데 용이하다. 브레이드는 머리가닥을 줄기로 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기에 한 가닥씩 머리가닥을 슬라이스(Slice)해서 구체적인 형태를 만들어간다. 슬라이스(Slice)를 하는 방법은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의 디자인에 따른 포인트를 둘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지며 땅은 머리가닥의 균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모발의 양을 일정하게 해야 하며 머리숱이 적을 경우에는 머리가닥의 폭을 빗질로 넓힘으로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의 기법의 기술적인 방법에서는 형태는 시각과 촉각에 의해 지각된다고 하여 형태를 지각할 때 시각과 촉각의 작용 정도를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이 주로 형태에 의한 작업이 진행되므로 형태 지각적 측면에서 감각기관의 지각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본 장에서는 먼저 촉각과 시각의 개념을 시작하여, 각 감각에 따른 브레이딩 기법 환경에서 촉각과 시각을 통해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의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촉각의 의한 브레이딩 방법

생리학에서 촉각이란 피부감각의 하나로서 피부가 물건에 닿았을 때 일어나는 감각이다. 피부에 있는 수용기 들을 자극함으로써 발생하는 감각을 피부 감각이라고 하며, 피부감각에는 다양한 감각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피부감각의 종류는 아직도 명확히 분류하기가 힘들며, 단지 우리의 피부에는 ‘압각(壓覺)’, ‘온각(溫覺)’, ‘통각(痛覺)’을 느끼는 세 종류의 별도 기관이 있다고 한다.⁸²⁾ 촉각은 주의 사물을 탐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지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촉각(觸覺)’은 인간의 눈과 귀의 기능이 완전히 갖추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하며 따라서 시각이나 청각보다 더욱 원초적이고 직관적인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⁸³⁾ 촉각은 일차적 감각이자 혹은 재질감에 기여하는 가장 기본적 요소 중 하나이고,⁸⁴⁾ 일차적인 정보처리 과정으로 외부자극 정보가 내부 신경계의 신호로 일차적 변형하여 입력되는 과정이다. 또한 생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생리적 정보이기도 하다. 로렌스(Lawrence, k)는 촉각은 피부에 작용하는 접촉감각, 압각, 마찰감각, 증량감 및 충돌감각 등의 역학적 자극을 감지하는 기능이며, 이를 기초로 ‘매끄러움’, ‘부드러움’, ‘딱딱한’, ‘부피감’, ‘탄력성’, ‘온도감’등의 인간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촉각, 질감의 감성 표현을 촉감이라 하였다.⁸⁵⁾

82) 박경수(2002), 『감성공학 및 감각생리』, 서울 : 영지문화사, p. 281.

83) 황선영, 서종환(2002), 『웹사이트에서의 직관적 유희성 증대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 연구 통권 제153호.

84) 김수경(2005), 『시각적 촉감을 활용한 그래픽 표현연구』,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p. 6.

85) Lawrence, k(1996), “pain and Touch”, Academic Press

1)안뜨기(Invisible braiding)

안뜨기 기법은 뜨는 형태가 두상 위에 나타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주로 정수리부분이나 전두부 부분에 사용하며 머리가닥을 위로 겹침으로서 시술하며 페이스 라인(face line)에서 디자인 선을 창조시키는 방법으로 뜨는 형태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형성시킨다.

시작점을 두상의 정수리 부분인 C·P에서 구획을 설정한다. 설정된 구획의 머리가닥을 잡아 세 가닥으로 나눈다. 왼쪽에 첫 번째 머리가닥 그 위에 두 번째 머리가닥을 중앙에서 교차시킨다. 오른쪽 세 번째 머리가닥을 잡고 그 위에는 중앙에 있는 머리가닥을 교차시킨다.[사진19-1] 왼쪽에 있던 두 번째 머리가닥을 잡고 두피에서 1cm정도의 넓이 머리가닥을 결합시킨다.[사진19-2] 본래 첫 번째 머리가닥을 중앙으로 이동하여 오른쪽 두피에서 일정량의 머리가닥을 잡아 첫 번째 머리가닥과 합친다. 밑에 있는 두발은 슬라이스를 하면서 정중선을 이루면서 목선까지 뜨는 것을 계속한다.[사진19-5] 교차되어 뜨는 머리가닥이 목선에서 멈춰지게 되면 계속적으로 세 가닥 뜨기를 하고 고무밴드로 모선부분을 묶어 다음 남은 다발을 아래로 집어 올려 핀으로 고정한다.[사진19-6]



[사진19-1]



[사진19-2]



[사진19-3]



[사진19-4]



[사진19-5]



[사진19-6]

[사진19 - 안 땡기 시술과정]

2) 겉땡기(visible braiding)

겉땡기 기법은 땡은 형태가 두상 위에 뚜렷하고 두드러지게 나는 것을 말한다. 머리가닥을 아래로 보이게 땡음으로써 행해지는 방법으로 머리가닥이 중앙머리가닥 아래에 위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땡기와 같은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시작점으로 설정된 구획의 머리가닥을 평평하게 잡아 세 가닥으로 나눈다.[사진20-1] 오른쪽에 첫 번째 머리가닥을 중앙 아래에 놓고 그 밑에 왼쪽 머리가닥을 그 아래 중앙에서 교차시킨다.[사진20-2]

오른쪽 세 번째 머리가닥을 잡고 그 밑에는 중앙에 있는 머리가닥을 교차시킨다. 오른쪽에 있는 두피에서 1cm정도의 넓이 머리가닥을 결합시켜 이 합쳐진 머리가닥을 중앙 아래에 위치한다.

위처럼 머리가닥을 잡아 땡기를 계속하여 밑에 있는 두발은 슬라이스를 하면서 정중선을 이루면서 목선까지 땡는 것을 계속한다.[사진20-5]

교차되어 땡은 머리가닥이 목선에서 멈춰지게 되면 계속적으로 세 가닥 땡기를 하고 고무밴드로 모선부분을 묶어 다음 남은 다발을 아래로 집어 올려 핀으로 고정한다.[사진20-6]



[사진20-1]



[사진20-2]

[사진

20-3]



[사진20-4]

[사진20-5]

[사진20-6]

[사진20 - 겉뜨기 시술과정]

3) 2가닥 뜨기(Fish bone, Twist braiding)

두 가닥을 번갈아서 겹쳐지게 뜨는 기법으로 완성된 뜨은 모양이 생선 뼈 모양 같아 피쉬본 브레이드(Fish bone braid)가 있고, 두 가닥 뜨기에는 뜨아줄 머리가닥을 두 가닥으로 나눠 같은 방향으로 돌려 뜨는 트위스트 브레이드(Twist braid)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피쉬본 브레이드(Fish bone braid)는 한 가닥으로 묶은 모발을 두 가닥으로 나눠[사진21-1] 각 머리가닥에서 뒤쪽 중앙에 머리가닥을 1/3정도 슬라이스 하여 오른쪽 머리가닥에 싸고돌면서 왼쪽 머리가닥도 마찬가지로 왼쪽의 뒷부분 중앙에서 1/3 정도 슬라이스 하여 오른쪽 머리가닥 옆에 나란히 겹을 빚는 방법으로서 [사진21-2] 중앙 머리가닥의 방법과 적당한 텐션을 주면서 계속 겹치면 앞, 뒤의 모양이 똑같은 생선 뼈 모양의 형태감이 표현된다.[사진21-3]

트위스트 브레이드(Twist braid)은 한 가닥으로 묶은 모발을 작게 나눠서 꼬아서 새끼줄을 엮듯이 꼬는 방법이다. 이는 흔들림이 적고 브레이드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장점과 모발의 양감을 정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흑인 모발 상태 즉 곱슬모에 많이 적용하고 있다.

모량의 균형을 이루기위서 모량이 많으면 굵게 트위스트 브레이드를 하고, 모량이 적으며 적게 트위스트 브레이드를 하여 고정하는 것이 좋다.



[사진19-1]



[사진19-2]



[사진

19-3]

[사진19 - 피쉬본 브레이드(Fish bone braid) 시술과정]



[사진20-1]



[사진20-2]



[사진

20-3]

[사진20 - 트위스트(Twist) 땃기 시술평정]

4) 바구니 땃기(Basket braiding)

바구니 땃기(Basket braiding)는 모발 전체를 넓고 다양한 효과의 질감 표현하기 위해 머리가닥을 교차시키는 브레이드 기법이다.

바구니 짜기와 같은 방법으로 머리가닥이 낄실과 씨실의 역할을 하여 서로 위아래로 엮어지는 모양을 하고 있다.

시작점을 두상 위에 지정을 하고 세 가닥으로 납작하게 시작한다. [사진23-1] 가로, 세로 1cm정도의 폭을 슬라이스 하여 엮어가는 과정으로 바구니 모양을 형상화시킨다. [사진23-3]

바구니 땃기를 할 때 모발에 적당량 물 스프레이 분사를 하여 탄탄한 모양이 나오거나 느슨하게 표현이 용이할 수 있다.



[사진23-1]



[사진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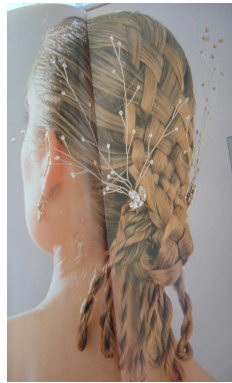


[사진23-3]

[사진23 - 바구니 땃기 시술평정]



[사진24]⁸⁶⁾



[사진25] ⁸⁷⁾



[사진26]⁸⁸⁾

3. 시각의 의한 브레이딩 방법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위 환경에 대한 감각정보의 80%가 시각을 통해 들어온다. 시각조절에 필요한 뇌 회로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서 출생 시의 시력은 매우 약하며 몇 개월 동안은 심한 근시상태로 있다가 만 1세가 되어야 성인 수준의 정성 사력을 갖게 된다.

시각의 기본적인 차원은 가시광선(400nm~700nm)내의 전자파를 명도(brightness)색상(hue) 채도(saturation) 및 형태(form)로 구분하여 사물의 상을 망막에 맺어준다는 것이며, 망막에 떨어지는 빛의 분포가 대상시야와 닮은꼴의 대비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⁸⁹⁾

더욱 주의 집중을 하면 대상에 초점이 확실히 맺어지며 대비상태의 특성들을 들을 분석한다. 대상형태인 형상과 시야의 나머지

86) NELSON SABARIZ,1994, 전게서, p.52.

87) NELSON SABARIZ,1994, 전게서, p.6.

88) NELSON SABARIZ. VOL.3,1994, 전게서, p.56.

89) 신선창(2003), 전게논문, p. 3.

를 후경(後景)으로 구획 지을 것이며 우리의 주위에 따라 형상과 후경이 구분되어진다.

그렇게 맺어진 상은 인지체계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형상을 이해하고 뇌로 전달되는데 뇌에서는 생각하고 감지(感知)하면서 단기 기억(short term memory)속에 저장되어 개인적 요소의 영향에 선택적 지각에 의해서 변형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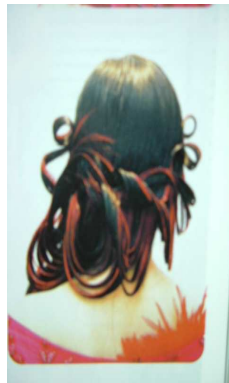
1) 헤어 컬러링을 통한 브레이딩



[사진27]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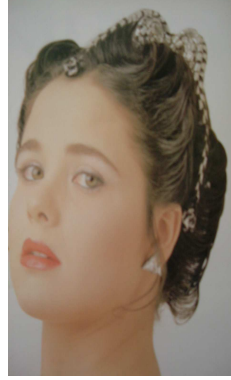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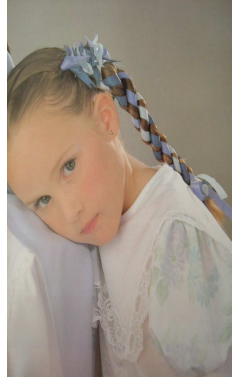


[사진28]⁹¹⁾



[사진29]⁹²⁾

2) 리본을 이용한 브레이딩



[사진30]⁹³⁾

[사진31]⁹⁴⁾

[사진

32]⁹⁵⁾

3) 헤어피스를 이용한 브레이딩



90) 임호순 외(2004), 전게서, p. 142.

91) 미용회보(2005), 10월호 통권245호, p.46.

92) 미용회보(2005), 12월호 통권247호, p.43.

93) 미용회보 (2005), 12월호 통권247호, 전게서, p.183.

94) NELSON SABARIZ. VOL.3, 1994, 전게서, p.37.

95) NELSON SABARIZ, 1994, 전게서, p.67.

4. 기기에 의한 브레이딩 방법

기기를 활용한 브레이드 기법은 과학적 접근으로 신속성과 효율성으로 대량 브레이딩 완성 작업을 완성도 높게 나타나며 수작업으로의 한계성을 보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매우 미세한 머리가닥도 기기의 작업으로 균일성과 팽팽함을 표현할 수 있으며 손으로 하는 작업보다 약 50~70%정도의 시간을 단축해 준다. 시간의 효율성으로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활용되며 미용 디자이너의 육체적인 스트레스 감소와 고객의 지루함도 줄어든다.

96) NELSON SABARIZ, 1994, 전계서, p.174.

97) 임호순 외(2004), 전계서, p. 102.

98) 임호순 외(2004), 전계서, p. 117.

처음 미용디자인에서 브레이드 기기를 발명한 사람은 서울 대학교 산업공학과 이면우 교수가 (주) 'H'사로 미용업체에 브레이드 기기를 도입하였다. 이로 미용전문가와 일반인도 손쉽게 브레이딩 연출을 하게 되었다.

'U'사나 'P'사, 'E'사 등 각 브랜드별로 브레이드 기기의 제품이 나와 다양한 미용업체에서 제품을 출시되었다. 이에 미용전문인과 대중에게 손쉽게 애용되는 실용적인 기기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빠르고 다양한 헤어 스타일 연출을 손쉽게 브레이드 연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브레이드 기기 사용의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모발의 길이가 어깨 이하정도 긴 머리가 좋으며, 머리갈래가 엉기지 않도록 머리를 기기 사용 동안에는 팽팽한 상태를 유지하여야한다. 또한 머리가 풀어지지 않도록 머리의 끝부분을 단단히 잡아져야한다.

1) 트위스트 기기

트위스트 브레이드 기기의 특징은 두 가닥의 모발을 수작업으로 꼬기 작업을 하였을 때 시간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두발 전체의 트위스트를 브레이드를 시술할 경우 대략 10시간의 시간이 소요 되지만 기기를 이용할 경우 약 3시간 정도면 가능하다. 수작업일 경우 트위스트 브레이드는 두 가닥의 머리가닥으로

시술하지만 기기 사용 시 세 가닥이나 네 가닥의 모발의 트위스트 브레이드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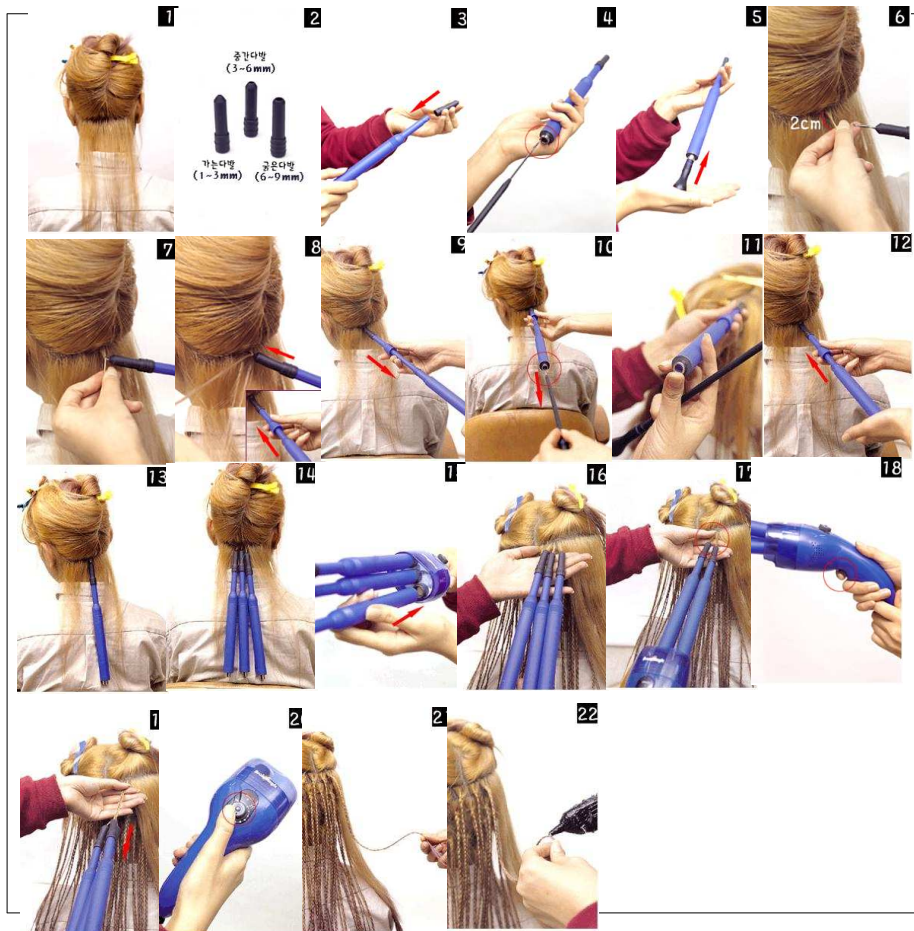
[사진36]⁹⁹⁾

목덜미 부분부터 시작하여 연출 부위의 머리가닥을 2~4가닥으로 나눈다. 헤어핀의 아래 부분을 위로 밀면 고리부분이 열려 머리가닥의 끝부분이나 혹은 적당한 부분을 고리에 건다. 각각의 머리가닥을 잘 빗은 다음 회전 핀에 부착된 고리에 걸어준다. 이때 주의할 점은 1개의 회전 핀에 한 가닥만 고정한다. 전원스위치를 작동하면 머리가닥이 꼬아진다. 세 가닥으로 꼬아줄 때와 네 가닥으로 꼬아주는 방법도 있다. 브레이드의 굵기는 적당히 땀은 머리가닥의 양과 가닥수에 의해 결정된다. 고무밴드로 땀은 머리의 끝부분을 실리콘으로 고정한다.

2) 세 가닥 기기



99) <http://dnshop.daum.net/front/product>



[사진37]¹⁰⁰⁾

목덜미 부분부터 시작하여(1) 땀은 머리가닥(대, 중, 소) 중에 적합한 모발 그림을 선택한다. 연장 튜브 끝 부분에 선택한(2) 그림을 끼우고 다른 2개의 연장 튜브에도 각각 끼운다.(3) 인서트 후크가 개방되었는지 확인 후 연장튜브 안으로(4) 끝까지 밀어 넣는다.(5) 잔머리는 후크에 매끄럽게 잘 걸리지 않기에 손으로 돌돌 말아준다.(6) 후크에 머리가닥 걸어(7) 연장 튜브손잡이를 열고 연장튜브 윗부분이 두피에 닿을 때까지 밀어준다.(8) 연장튜브를 3단까지 당겨주고(9) 연장튜브 끝을 잡고 인서트를 밖으로 빼낸다.(10) 단, 3단 튜브보다 모발길이가 짧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

100) www.hibraider.com/tech/tech.htm

용한다.(11) 3단 튜브를 화살표 방향으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밀며(12) 튜브 마무리가 된 상태이다.(13) 3개의 튜브가 겹치지 않도록 정리 후(14) 자석으로 뮌 본체의 연결포스트에 튜브를 연결시켜(15) 다른 머리가 걸리지 않도록 본체를 2cm정도 당겨주며(16) 두피에서부터 2cm 떨어진 부분을 손으로 잡아준다.(17) 본체를 약간 몸 쪽으로 잡아 당겨 전원 스위치를 작동 후(18) 땀아진 모발을 손바닥으로 잡아가면 본체를 모발 끝으로 서서히 끌어당기며(19) 본체 위에 있는 속도 조절기를 이용하여 브레이딩 속도를 조절한다.(20) 기기에서 머리가 빠지기 전에 손으로 잡아주며(21) 마지막 부분을 실리콘으로 접착시킨다.

IV.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을 이용한 텍스처의 실제적 응용

본 연구에서는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을 텍스처 느낌을
가미한 기법과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를 응용하여 3가지 측면에서
6작품을 디자인한 후 실제로 제작하였다.

첫 번째는 전통두식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로 우리나라와 서
양 시대적 특징적인 요소를 응용하여 디자인하였다. 두 번째는 파
티와 드레스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로 화려하면서도 심미성을
중점적으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 디자인하였다. 셋 번째는 오피스룩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로 현대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서 진취적
인 모습을 디자인하였다.

미용디자인의 특징적 요소로는 브레이딩 기법과 실루엣, 디테일
부분을 응용하여 현대에 맞게 구성하였다.

제시한 6 점의 작품은 다양한 특징을 지닌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의 연구를 통해 우리 시대의 문화와 정서에 맞는 독창적
인 디자인의 제시로 현대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 디자인 기
법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전통두식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

작품1 - 조선시대의 어여머리

본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머리 형태로 ‘또야 머리’ 라고도 한다. 논셋트이면서 브레이딩 텍스처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한 작품이다. 조선시대 의천왕비의 모습을 재현해보며 그 당시 많이 사용되었던 다리¹⁰¹⁾를 소재로 사용하였으며, 브레이딩으로 입체감있게 표현하였다.[사진38-완성작]

쪽머리부분은 두상에 밀착시켜 곱게 빗질하여 목덜미에 낮게 묶어 세 가닥 땡기를 하여 자주색 형겔 땡기를 머리에 묶는다. [사진38-1] 쪽머리에 솜 족두리(어염족두리)를 쓰고 [사진38-2] 그 위에 다리로 땡기를 하여 입체감 있게 표현된 커다란 머리를 엮는다. [사진38-3] 나비잠을 중앙에 꿰고 화잠을 좌우에 1개씩 꿰었다. 색상은 머리를 장식하는 자주색의 형겔땡기를 사용하여 검은 머릿결과 땡기로 조선시대 예복용으로서 어여머리를 함에 , 여성의 숭고미를 표출하였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였다.

101) 다리란, 여자의 머리술이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 덧 넣은 머리양식. 판머리인 것이 다리이다.



[사진38-완성작]
38-후면]

[사진38-정면]

[사진38-측면]

[사진



[사진38-1]
[사진38-4]

[사진38-2]

[사진38-3]

[사진38 - 전통두식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 조선시대의 어여머
리시술과정 및 재현]

작품2 - 로마시대의 여성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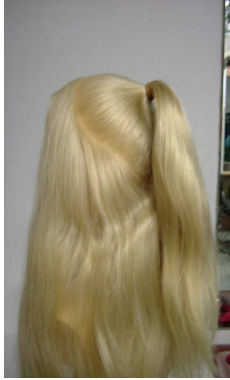
본 작품은 로마시대의 대표적인 여성 머리 형태로 돔 사원의 모양에서 유래했다. 공화정시대에는 여성은 단순한 헤어스타일을 지향하였으며, 여성들은 팜파두르형¹⁰²⁾이 유행하였다.

페이스 라인을 3cm정도 구획한 후 스퀘어 블로킹하여 트위스트(꼬기)기법을 하여 헤어라인에서 맞추름을 주어 입체감이 있는 팜파두르형을 표현하였다. 로마시대엔 축제 때 화관을 썼음을 착안하여 크라운 부분에는 말기 기법을 연출하였다. 자주색 헤어피스를 세 가닥 땡기를 하여 배치하였다.

로마시대는 금발을 선호하여 밝은 명도의 머릿결로 작업하였다.

로마시대 여인 머리는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로 트위스트 기법, 말기 기법, 세가닥 땡기 기법을 응용하여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데 사용되었다.

102) 팜파두르란, 머리를 모두 뒤로 빗어 넘기는 형태



[사진39-1]



[사진39-2]



[사진

39-3]

[사진39-4]



[사진39-완성작]



[사진39-측면]



[사진39-측면]

[사진39-후면]

[그림39 - 전통두식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 로마시대의
여성머리 시술과정 및 재현]

2. 파티 & 드레스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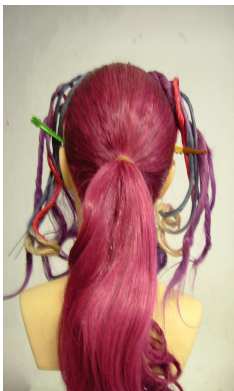
작품3 - A belle

본 작품은 파티에서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는 여인을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과 머리 색상을 통해 표현하였다.

페이스라인에서 꼬기 기법으로 색상과 실루엣을 더욱 강조하고자 곡선의 형태로 이동시켰다. 브레이딩 실루엣을 살리기 위해 머리 색상에 그라데이션과 다양한 색상 연출을 하였고 브레이딩 기법에 따라 전체적으로 울동감있게 하여 파티의 여왕의 이미지를 화려함을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을 통해 재현하고자 하였다.

목덜미 부분에 묶음처리 후 세 부분으로 나뉘, 첫 번째는 세 가닥 땃기 기법을 하여 움직임 주었고, 두 번째는 바구니 땃기 기법으로 안정감을 나타냈으면 셋 번째는 같은 방향을 향하게 하는 겹치시 기법으로 깊이감을 표현하였다. 색상은 붉은 자주색으로 하여 기품과 세련미를 연출하였고 포인트로 바이올렛(Violet)계열과 블루(Blue)계열의 색상을 선택하여 그라데이션의 울동감을 나타내기 위해 그라데이션 하였다.

화려하면서 기품 있는 여인의 이미지를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로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림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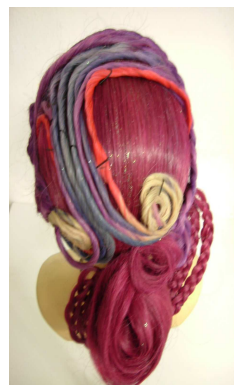


[그림40-2]



[그림40-3]

[그림40-4]





]



과타



0-측면]

[사

타일 A belle

작품4 - Ch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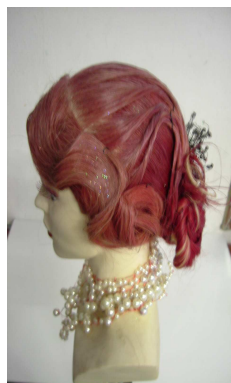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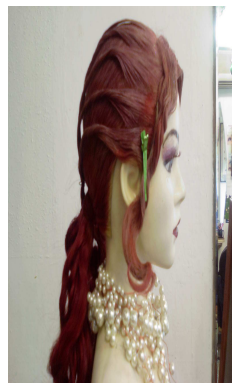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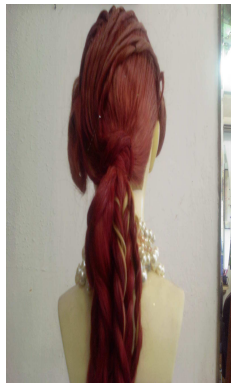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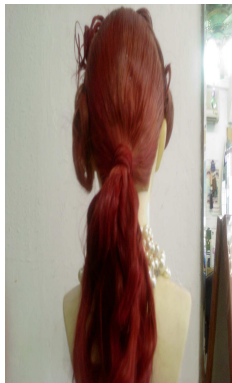
본 작품은 매력적인 드레스를 입은 여인을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 쪽머리를 오리엔탈 적 느낌과 붉은 색조 화하여 머리색상과 장신구로 표현하였다.

전두부 헤어 연출은 쪽머리 연출을 착안하여 리드미컬하게 스킵 웨이브하여 오리엔탈적 이미지를 연상하도록 디자인하고, 두정부는 꼬기 기법을 위치시킴으로써, 율동감을 의도한 작품이다.

네이프 부분에 곱이 추가되는 느낌의 두 가닥 땡기로 연결하여 두상 뒷면에 붉은 색과 노랑 색의 색상 대비조화로 위치시켜 기지·화려함을 의도한 작품이다.

또한, 꼬기 기법으로 드레이프성을 강조하여 머리색상과의 조화와 이상미를 추구하였다.

드레스의 화려한 느낌을 헤어 장신구와 목걸이를 착용함으로 붉은 머리 색상과의 조화로 현대적인 분위기를 살리고자 하였다.



[그림41-1]

[그림41-2]

[그림41-3]

[그림41-4]

[사진41-완성작]
41-후면]

[사진41-정면]

[사진41-측면]

[사진

[그림41 - 파티&드레스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 Charm
시술과정 및 재현]



3. 오피스 룩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

작품5 - Finish

본 작품은 현대 도시 여성이 완벽하며 자아실현을 하기 위한 우수한 커리어 우먼 이미지를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로 표현하였다.

클래식라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내면서 파워 우먼들의 오피스 룩 헤어 디자인을 하였다.

페미닌하고 섹시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B·P(Back Point)에 묶음을 하여 말기 기법을 기준으로 하였다. 양 옆은 자주색 헤어 피스를 이용하여 세 가닥 땋기 하여 포인트를 두었고, G·P(Golden Point)에 묶음을 하여 말기 기법을 하여 그 위에 9 가닥 땋기를 중앙에 연출하여 하였다.

본 작품에서는 쉬크한 패션을 모티브로 하여 귀엽고 아름다움을 헤어에 전이시켜 현대적으로 응용하고자 하였다.

후두부에는 수직적 조형성의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의 실루엣으로 연출하여 금발 헤어의 자주색 헤어 피스의 장식성을 나타냈다.

G·P에 묶음의 말기 기법을 가로로 표현함으로 수평적 분할구조로 재현하였다.



[그림42-1]



[그림42-2]



[그림42-3]

[그림42-4]



[사진42-완성작]
42-후면]



[사진42-정면]



[사진42-측면]



[사진

[그림42 - 오피스 룩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 Finish 시술과정
및 재현]

2) Provocation

작품 6

본 작품은 오피스 룩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에서 관능미를 중점으로 작품을 표현하였다. 현대에는 과감한 노출과 분위기로 섹시미와 관능미가 주로 나타나고 있다.

F·S·P(Front Side Point)에서 S·P(Side Point)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 F·S·P에서 첫 번째 부분은 안뜯기 기법을 한 쪽만 머리가닥을 넣어 디스코 뜯기 기법 적용하였다. 헤어 컬러링 된 느낌이 나게 하고, 두 번째 부분은 곁뜯기 기법으로 중앙으로 모아서 고

리 기법으로 마무리 하였다.

T·P(Top Point)는 볼륨감을 연출하여 모선의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게 표현하여 자연적 예찬의 관능미를 표현하였다.

현대사회에서의 혁명적인 창조성을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로 풍부한 생산성을 나타내는 인간미를 본 작품에서 추구하였다.



[그림43-1]



[그림43-2]



[그림43-3]

[그림43-4]



[사진43-완성작]
43-후면]

[사진43-정면]

[사진43-측면]

[사진

[그림43 - 오피스 룩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 Provocation
시술과정 및 재현]

V.결 론

1.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문화의 한 부분인 미용(美容)양식인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전통미용양식을 수용하고자 하여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전통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의 모티브(motive)한 전통미용양식을 현대적으로 디자인 요소를 통한 컨셉의

특징을 연구하여 구현코자 함에 있었다. 인류가 수발 양식에서 가장 처음 시도한 머리양식은 브레이드 스타일임을 문헌과 고증 자료들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을 미용예술로 승화시켜 현대의 실용적인 미용 디자인에 응용하여 고감도의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을 디자인함에 있었다.

본 연구의 서론에서는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이 형성되는 데 있어 시대적 발생 배경 및 디자인적 미학과 관련하여 고찰하고,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에 영향으로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의 외적, 내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대적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의 중요한 기조가 되는 브레이딩의 특징과 미적 특성에서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 디자인에 어떠한 역할을 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수용, 표출되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현대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을 미용 디자인에 응용하고자 하였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생을 통하여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미작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본능은 인류 역사와 함께 더불어 시작되어 발전 변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 민족의 의식생활은 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 즉, 자연환경이나 종교사상, 사회구조 등의 요소로 이루어지며 이것은 시대적 배경에 따라 변화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와 서양의 의식문화 속에 내제되어 있는 미용양식은 여러 요소들에 의해 형성 변천하여 왔다.

그 중에서도 종교는 그 사회,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우리나라와 서양에서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을 비롯한 미용양식에 폭넓은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무릇 여성들의 머리형태는 고금을 불문하고 아름다워지려는 욕망으로 변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비롯해 남성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였다.

본론에 우리나라 논셋트 업스타일 스타일 경향에서는 선사시대에는 모발 정리의 관습은 설화에 불과하지만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원시시대부터 것으로 고대 사회에서부터 모발을 정리하여 신분의 표시까지 했는데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삼국시대의 풀어 늘어진 머리에서 발달된 계(髻)는 머리가닥을 합쳐 묶는 결발(結髮)의 양식으로 남자는 모두 상투머리를 틀고 여자는 북계(北髻)(쭈진머리, 민머리), 엷은머리 기타 여러 머리형태

로 남자의 머리모양보다 훨씬 복잡하였으며 이로 고려시대에는 결발(結髮)형태에서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의 발전된 양상을 보여 주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풍속의 결발(結髮)형태를 이어 받았으며 대표적인 머리양식은 엷은머리 즉 “트레머리”라고 하고 쪽머리를 우리나라 상고시대부터 이어온 전통적인 머리양식이었다.

현대에 들어와서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은 토털 패션이 강조되면서 개성을 추구하고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여보다 자연스럽게 손질하기 편한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조금씩 논셋트 업스타일이 미용 소비자의 욕구저하와 시대상의 의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현대에서는 논셋트 업스타일이 다양한 기법과 브레이드(Braid)의 기본 형태로 자리 잡아 인식되어지고 있다. 내림 형태에서 가체를 사용하는 기술과 묶음으로 꼬거나 땡는 모양의 논셋트 업스타일이 먼저 시작되어 변화, 발전된 것을 알 수 있다.

서양 논셋트 업스타일 스타일 경향에서 이집트의 미용역사는 브레이드 기법을 활용한 가발의 역사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가발의 기교는 정교했다. 또한, 아름답고 우아하게 보이는 머리끈으로서 머리가닥을 조금한 다발로 매듭지어 금 고리를 끼워 넣는 방법을 사용해 머리의 흐트러짐을 방지하며 장신구로 되어 여성들이 즐겨하였다. 그리스 시대에는 앞머리를 짧게 커트해서 이를 고리모양으로 만들어 이마에 북돋게 하였으며 브레이드(braid)를 길게 만들어 머리 모양에 둘러 핀으로 고정해 개성 있게 표현하였다. 로마시대에는 머리 가닥을 땡아 위로 올린 방법으로서 사용된 철제로 된 막대기에 약한 불로 데워서 나선상의 쉼이나 이마 옆머리에 붙인테 이용하여 논셋트 브레이딩이 셋트 브레이딩으로 첫 시도 된 시기일 것이다.

중세의 머리모양은 브레이드(braid) 기법을 사용한 스타일이 많이 엷보였다. 르네상스의 머리모양은 리본을 서로 엮어 끈으로 만들어 어깨에 늘어뜨린 것과 가르마를 탄 앞머리를 턱선 정도 잘라 쉼(curl)을 만들어 단발형을 만들고 뒷부분은 업스타일 한 것이 많았다.

로코코에는 머리 장식에 많은 관심이 집중된 시대로 머리 모양이 점차 높아지고 거대해졌으며 장식 역시 크고 화려했다.

근대에는 극단적으로 머리 모양이 과장되어 의상과 함께 짧은 모발을 모자로 장식하였으며 점점 길어지면서 굵은 쉼을 이용하여 볼륨을 살려주는 스타일로 하면서 여성적이고 얌전하면서도 품위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현대는 급진적으로 과학과 문화의 발전으로 매우 다양하게 미용으로 변화하였다. 두발의 형태와 장식은 개개인의 맞는 개성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고, 짧거나 긴 헤어스타일에 퍼머넨트 웨이브와 염색 등으로 발달하였다. 이는 퍼머넨트 웨이브의 도입은 논셋트 업스타일을 서서히 시술 작업의 빈도를 낮추어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논셋트 업스타일 스타일 경향과 서양 논셋트 업스타일 스타일 경향에서 셋팅 업스타일 형태보다 내림 형태에 묶음으로 꼬거나 땡는 모양의 논셋트 업스타일이 먼저 시작되어 변화, 발전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을 텍스처 느낌을 가미한 기법과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를 응용하여 3가지 측면에서 6작품을 디자인한 후 실제로 제작하였다. 미용디자인의 특징적 요소로는 브레이딩 기법과 실루엣, 디테일 부분을 응용하여 현대에 맞게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전통두식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로 우리나라와 서양 시대적 특징적인 요소를 응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작품1에 조선시대의 어여머리는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머리 형태로 논셋트이면서 브레이딩 텍스처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한 작품이다. 조선시대 의친왕비의 모습을 재현해보며 그 당시 많이 사용되었던 다리를 소재로 사용하였으며, 브레이딩으로 입체감 있게 표현하였다. 색상은 머리를 장식하는 자주색의 형곶땡기를 사용하여 검은 머릿결과 땡기로 조선시대 예복용으로서 어여머리를 함에 ,여성의 숭고미를 표출하였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작품2는 로마시대의 여성머리로 로마시대의 대표적인 여성 머리 형태로 돔 사원의 모양에서 유래했다. 페이스 라인을 3cm정도 구획한 후 스퀘어 블로킹하여 트위스트(꼬기)기법을 하여 헤어라인에서 맞추름을 주어 입체감이 있는 팜파두르형을 표현하였다. 로마시대엔 축제 때 화관을 썼음을 착안하여 크라운 부분에는 말기 기법을 연출하였다. 자주색 헤어피스를 세 가닥 땡기를 하여 배치하였다. 로마시대 여인 머리는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로 트위스트 기법, 말기 기법, 세가닥 땡기 기법을 응용하여 현대적으로 재구

성하는데 사용되었다.

두 번째는 파티와 드레스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로 화려하면서도 심미성을 중점적으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 디자인하였다.

작품3 A belle는 파티에서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는 여인을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과 머리 색상을 통해 표현하였다.

페이스라인에서 꼬기 기법으로 색상과 실루엣을 더욱 강조하고자 곡선의 형태로 이동시켰다. 브레이딩 실루엣을 살리기 위해 머리 색상에 그라데이션과 다양한 색상 연출을 하였고 브레이딩 기법에 따라 전체적으로 울동감있게 하여 파티의 여왕의 이미지를 화려함을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을 통해 재현하고자 하였다. 색상은 붉은 자주색으로 하여 기품과 세련미를 연출하였고 포인트로 바이올렛(Violet)계열과 블루(Blue)계열의 색상을선택하여 그라데이션의 울동감을 나타내기 위해 그라데이션 하였다. 화려하면서 기품 있는 여인의 이미지를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로 현대적으로 재구성 하였다.

작품4 Charm은 매력적인 드레스를 입은 여인을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 쪽머리를 오리엔탈 적 느낌과 붉은 색조 화하여 머리색상과 장신구로 표현하였다. 전두부 헤어 연출은 쪽머리 연출을 착안하여 리드미컬하게 스킵 웨이브하여 오리엔탈적 이미지를 연상하도록 디자인하고, 두정부는 꼬기 기법을 위치시킴으로써, 울동감을 의도한 작품이다. 네이프 부분에 겹이 추가되는 느낌의 두 가닥 땡기로 연결하여 두상 뒷면에 붉은 색과 노랑 색의 색상 대비조화로 위치시켜 기지·화려함을 의도한 작품이다. 드레스의 화려한 느낌을 헤어 장신구와 목걸이를 착용함으로 붉은 머리 색상과의 조화로 현대적인 분위기를 살리고자 하였다.

셋 번째는 오피스룩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로 현대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서 진취적인 모습을 디자인하였다.

작품 5 Finish는 현대 도시 여성이 완벽하며 자아실현을 하기 위한 우수한 커리어 우먼 이미지를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로 표현하였다.

클래식라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내면서 파워 우먼들의 오피스 룩 헤어 디자인을 하였다. 본 작품에서는 쉬크한 패션을 모티브로 하여 귀엽고 아름다움을 헤어에 전이시켜 현대적으로 응용하고자 하였다.

작품 6 Provocation는 오피스 룩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에서 관능미를 중점으로 작품을 표현하였다. 현대에는 과감한 노출과 분위기로 섹시미와 관능미가 주로 나타나고 있다.

F·S·P에서 첫 번째 부분은 안뜯기 기법을 한 쪽만 머리가닥을 넣어 디스코 뜯기 기법 적용하였다. T·P(Top Point)는 볼륨감을 연출하여 모션의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게 표현하여 자연적 예찬의 관능미를 표현하였다.

현대사회에서의 혁명적인 창조성을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로 풍부한 생산성을 나타내는 인간미를 본 작품에서 추구하였다.

미용디자인의 특징적 요소로는 브레이딩 기법과 실루엣, 디테일 부분을 응용하여 현대에 맞게 구성하였다.

제시한 6 점의 작품은 다양한 특징을 지닌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의 연구를 통해 우리 시대의 문화와 정서에 맞는 독창적인 디자인의 제시로 현대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 디자인 기법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논셋트 브레이딩 업스타일의 미용양식 문화는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는 수직문화에서 타의 문화를 무조건 수용하는 수평문화 시대로 발전하고 다시 외래문화를 전통문화에 절충, 조화시키는 역 수직 문화 시대로 발전해 가는바, 이러한 움직임들은 현대 미용양식 역사의 존재방식을 모색해 나가는 데 있어 이정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결과가 그러한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가 광범위하게 설정됨으로써 어느 부분에서는 시간 개념이 모호할 수 있다는 것이 개선점으로 남는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체계적화 하여 부분적인 연구들이 요구되며 그러한 결과가 다시 종합되는 방식을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국내 본)

- 강영숙 외(2004), 『웨딩헤어 디자인』, 서울 : 훈민사
- 강영숙 외(2004), 『웨딩 헤어 디자인』, 서울 : 훈민사
- 고성현 외(2002), 『컷디자인』, 서울 : 수문사
- 권상구(1997), 『시각디자인의기초』, 서울 : 미진사
- 기린인증원교재편찬위원회(2001), 『토텔코디네이션』, 경산대학교출판부
- 김민수(2001),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서울 : 솔출판사
- 김태호, 김홍규(2002), 『21세기현대디자인사전』, 서울 : 조형사
- 김희숙, 이은영(1996), 『메이크업과 패션』, 서울 : 수문사
- 柳喜卿(1975), 『韓國 服飾史 研究』, 서울 : 梨大출판사
- 박경수(2002), 『감성공학 및 감각생리』, 서울 : 영지문화사
- 성기역 編著(1979), 『造景美學』, 서울 : 학문사
- 이경자(1995), 『한국복식사론』, 서울 : 일지사
- 이노우에 요헤이(박경숙 역, 1985), 『Hair Design』, 서울 : 한서
- 이상근 외(2003), 『업스타일 디자인 방법론』, 서울 : 형설출판사
- 이은영(1997), 『복식의장학』, 서울 : 교문사
- 이은창(1978), 『韓國服飾의 歷史교양국사총서29』,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林然雄(1993), 『현대디자인론』, 서울 : 학문사
- 임호순 외(2004), 『헤어디자이너를 위한 업스타일』, 서울 : 성화
- 전완길 외(1995), 『한국생활문화100년』, 서울 : 장원
- 정경원(1993, 『미래의 경쟁, 디자인에 달려있다』, 서울 : 디자인하우스
- 趙孝順(1988), 『韓國 服飾 風俗史 研究』, 서울 : 일지사
- 존&에브릴블레이크(정경원 역)(1993), 『현대디자인의 현실과 이상』, 서울 : 미진사
- 차룻왈쉬레거, 신디아부-스나이더(원유홍 역)(2002), 『디자인의개념과원리』, 서울 : 안그라픽스

- 패트리카메론 최근회의 역(2003), 『긴머리 업스타일』, 서울 : 예림
- 한성진(2005), 『Up&Up한성진의 15분업스타일』, 서울 : 드림북
- 黃沔楨(1979), 『韓國 裝身具史』, 서울 : 서문당

해외 분)

- Ana Maria Lopez y Jesus Priego, EL ARTE del Recogido (Espana: PELUQUERIAS DE SELECCION,1999)
- Harold Osborne(ed.), The Oxford Companion to Ar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1970)
- Lawrence, k(1996), "pain and Touch", Academic Press
- NELSON SABARIZ, TRENZADOS Y RECOGIDOS (Spain: M&B PUBLICACIONES,1994)
- NELSON SABARIZ, TRENZADOS Y RECOGIDOS VOL.3 (Spain: M&B PUBLICACIONES,1994)
- PIVOT PIONT, Long Hair (Chicago : Pivot Point Inc.,1996)
- PIVOT PIONT, Long Hair design forum (Chicago : Pivot Point Inc.,2001)
- Tatarkiewicz, W. 이용대 역(1998), 『여섯가지 개념의 역사』, 이론과 실천

<논 문>

- 金容文(1993), 『아시아의 수발양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 대학원
- 김수경(2005), 『시각적 촉감을 활용한 그래픽 표현연구』,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 柳景子(2004), 『풍속화에 나타난 조선 후기 여성의 두식』,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 백정희(2006), 『업스타일 기법의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 신선창(2003), 『꽃을 이미지를 통한감성적조형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 이귀영(2002), 『큐비즘 회화를 응용한 헤어스타일이 조형성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 이영주(2000), 『조선시대 가체 변화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학교 대학원
- 이청자(2002), 『히피패션에 나타난 히피헤어스타일분석』,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 전선경(1994), 『서구 여성의 머리형태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전옥주(2003), 『Hair 로 인한 image 창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 鄭淑香(2002), 『업헤어스타일의 디자인 開發에 關한 研究』, 대구카톨릭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 조미영(2004), 『조선후기 여성의 머리형태 재현에 의한 현대 업스타일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 최세완(1992). 『현대패션에 표현된 한국복식의 전통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홍서연(1989), 『纖維를 응용한 머리 裝身具에 관한 研究』, 숙명여자대학교산업대학원

<학회지 및 기타>

- 미용회보(2005), 10월호 통권245호
- 미용회보(2005), 12월호 통권247호
- 황선영, 서종환(2002), 『웹사이트에서의 직관적 유희성 증대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 연구 통권 제153호.
- 김혜경(2000), 『건축과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미니멀리즘 연구』, 디자인 포럼 21, 제4집
- 문영숙(2001), 『20C헤어스타일변천사고찰』, 한국인체예술학회지제2권제2호,
- 송희라 외(2000), 『헤어 패션에 나타난 브레이딩 헤어스타일』, 한국인체예술학회지제1권

<인터넷 자료>

- <http://dnshop.daum.net/front/product>
- <http://www.hibraid.com/tech/tech.htm>

ABSTRACT

The study of the technique of Non-set braided Up-style

Song, Joo-Youn

Major in Hair Design

Departmen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first to consider the formation of non-set braided up-style based on its periodical background and stylish esthetics

There are two kinds of desire in human, that is intuitive thoughts that aim to exist and intuitive desire that wants to care their face and hair.

An esthetical desire existed since ancient age. We can realize this when we see the frescoes on the caves from the Old Stone Age. The frescoes show that the people from that age decorated their body with animals' skins.

This kind of esthetical desires originate from a hope that wants to live more comfortable than before and it is now being expressed by creative thinking.

Creative thinking is a process of thinking how to achieve a wisdom or a beautiful and comfortable life by thinking and researching the answers of natural acts based on scientific concepts.

When we think of beauty culture design as a oriental and western cultural phenomenon, the hair style's peculiarity appears following the conditions of various facts like politics, economy, sociology, culture and religious.

The peculiarity of hair style was expressed as inner and outer side of human activity's beauty culture using hair according the satisfaction that appears during the body and spirit, religious rituals.

There are several functions that hair has. First, it protects brain that is the most important organ of our body, Second, it represents the position or wealth of every individual. Third, it becomes an important method to satisfy the esthetic desire. Forth, it forms and expresses the cultural value of formative arts that represent the era.

Hair style has changed and developed according to status, ideology, value, social status.

In the modern society, hair style is an expression that shows special attraction and a way of finding oneself.

Also, it is an important visual media as an organic action and it forms a certain image to other people in limited time and place. Therefore, a certain hair style is being used according to place, time, job and position.

So the beauty culture design that is important to human is used as functional, esthetical and symbolistic expression that is applied to sociocultural.

In order to direct hair style, a design that can form various ideas, materials etc is necessary.

